



새언약초중고등학교 추수감사절 행사에 학생들이 준비한 다양한 문화 공연도 마련됐다.

다민족연합기도회 한인본부

“교회 참여와 협조에 큰 감사”

전국적 기도운동 확산과 2세 참여 활성화 약속

다민족연합기도회 한인본부 측은 이번 기도회를 전 미국에 기도 운동을 확산할 뿐 아니라 한인 1세와 2세가 영적으로 하나되는 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1일 금요일, 한인본부 측은 지난 11월 11일 버라이어티 야외극장에서 열렸던 다민족기도회 행사를 평가하는 기자간담회를 한인타운 내 한 식당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는 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 총무 김기동 목사, 실행위원 신현철 목사, 코디네이터 전두승 목사, JAMA의 강영수 목사 등이 참석했다.

먼저 이들은 이 대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중도에 장소가 2번이나 변경되는 혼란이 있었지만 한인 5천여 명이 일반인까지 내려가서 기도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강순영 목사는 “준비상의 어려움으로 장소가 행사 5일 전에 또 한 차례 바뀌었지만 한인 언론사들이 이를 발 빠르게 보도해 주었기에 오히려 2배의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인본부 측은 “기도회 장소가 변경된 후, 남가주 지역 각 교회에 편지와, 이메일, 전화 등으로 긴급히 이 사실을 공지하고 협조를 부탁했다”면서 “한인교회들의 도움과 참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 “행사 장소가 야외이다 보니 집중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했지만 오히려 더욱 은혜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인들의 참여에 대한 주최 측의 감사도 소개됐다. 당일 오후 1시부터 기도회가 시작돼 다양한 민족들이 기도했지만 최대 참석 인원이 시간대마다 500명도 채 넘지 못했다. 주최 측은 생각보다 저조한 참여 인원 때문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JAMA의 강영수 목사는 “그러나 한인들의 기도시간이 되자 순식간에 수천 명이 행사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버라이어티 극장 직원들

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신현철 목사는 “마치 구름때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행사를 마친 후, 한인본부 측에 큰 감사를 전해 왔다고 한다.

강순영 목사는 이 기도의 열기를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와 함께 전국 규모로 확대해 갈 계획을 갖고 있다. 내년 1월 은혜한인교회, 2월 달라스, 3월 뉴욕, 4월 워싱턴DC, 5월 시카고, 6월 시애틀 등 6개 지역에서 “도시와 미국의 부흥을 위한 미주교회 연합기도회”가 한인교회 중심으로 개최된다. 또 가깝게는 국가기도의 날이 있다. 매년 5월 첫째 주 전 미국인들이 미국과 정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국가기도의 날 행사에 남가주교회는 매년 LA와 OC를 중심으로 참여해 왔다.

전두승 목사는 “미국교회는 전국에서 한인 중보기도자들이 이 기도의 날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별히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국가기도의 날 행사에는 미기총 한기총 대표회장이 스피커로 초청됐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으로 다민족연합기도회의 행사 구성이나 진행이 원활했다는 평가가 대세이나 차세대의 참여에 있어서 개선점도 지적됐다. 먼저는 아무래도 한인 1세들이 주도한 행사였지만 이례적으로 한인 2세 청년, 대학생들이 앞에 나와 기도회를 인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2세가 기도강사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2세들의 참여는 KCCC를 중심으로 1백여 명이 그쳤다는 점에서 한인본부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강순영 목사는 “올해 국가기도의 날 행사를 할 때에는 한인 2세들이 준비 과정부터 함께 하며 더욱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다 다양한 그룹과 접촉해서 2세들의 참여 폭도 넓히겠다 약속했다. 김준형 기자

“지난 1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언약학교, 교사·부모·자녀 함께 하는 추수감사절

올해로 개교 15주년을 맞이한 새언약초중고등학교(NCA)가 특별한 추수감사절 행사를 마련했다. 21일 오후 6시 학교 본당에서 열린 추수감사절 페스티벌에 300명의 재학생들과 학부모, 친지들이 함께 해 지난 1년의 삶과 학업을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4학년과 12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핸드벨 팀의 합주와 6학년과 7학년으로 구성된 기타 합주, 그리고 1학년과 3학년으로 구성된 바디워십팀이 공연을 했다. 이날 메시지를 전한 제이슨 송 교장은 “감사를 표현하는데에 인색하지 말자. 부모, 형제자매, 선생님, 친구, 목사님, 이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고 전했다.

이날 학부모와 학생들은 손수 음식을 준비하고 섬기며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NCA는 신앙과 열정을 갖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 기독교학교로 타 사립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안전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자랑한다. 김나래 기자

OC교협 정기총회

김기동 회장 인준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가 11월 20일 디사이플교회(담임 고현종 목사)에서 제24대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총회에서 수석부회장이던 김기동 목사가 회장에 인준됐으며 신임 수석부회장에는 민승기 목사가 선출됐다.

1부 개회예배는 부회장 윤덕곤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신복수 장로가 기도하고 직전이사장인 박용덕 목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라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제24대 총회가 열렸다. © OC교협


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 외에도 기획부회장에 송규식 목사, 신학부회장에 남성수 목사, 대외부회장에 윤덕곤 목사, 목회부회장에 이서 목사, 영성부회장에 이호우 목사, 교육부회장에 심상은 목

사, 평신도부회장에 윤우경 집사가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에 의해 선출됐다. 제 24대 회장 취임 감사예배는 12월 7일 오후 5시 나침반교회에서 열린다.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CMI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오렌지카운티 기독교 평신도 연합회 회장 및 이사장 이취임 감사예배



제 35대 회장
 윤우경 집사
 감사한인교회



제 33대 이사장
 신복수 장로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
 부이사장
 한창훈 장로, 정창섭 장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1980년 창립되어 35년째 Orange County와 인근지역에서 회복과 연합의 활동을 펼쳐온 Orange County 기독교 전도회연합회가 이제부터 오렌지카운티 기독교 평신도 연합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2014년 한해 동안 충성되어 섬겨오신 34대 회장 및 임원들과 32대 이사장 및 실행이사장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제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게되는 제 35대 회장단과 33대 이사장단의 이취임 감사 예배를 다음과 같이 드리고자 정중히 초청합니다.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4년 11월 30일 (주일) 오후 5시
장소 : 감사한인교회 예배당(부에나파크) 69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90620
말씀 :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담임)

수석부회장	재정부회장	행정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전도 선교부장	미디어부장	봉사부장	음악부장/지휘	음악부/반주
조승국 집사	정영숙 권사	유재원 집사	정준동 집사 (중경회장)	김경희 집사	박미하 집사	더글라스 김 집사	박형모 집사	제키 정 집사	황성삼 집사	주지정 집사
얼바인 은누리교회	은혜한인교회	남가주주비전교회	은혜한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교회	HYM 대표	감사한인교회	감사한인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얼바인아름다운교회
			은혜한인교회				전재룡 형제	박미애집사		
							나성교회	남가주주비전교회		

참가문의
 회장 T.(213)500-5449, 행정 T.(714)501-5479, 총무 T.(714)417-1528

오렌지카운티 기독교 평신도 연합회
 9828 Garden Grove Blvd, #106 Garden Grove, CA 92844
 ockca35@gmail.com https://www.facebook.com/OCKCA



왼쪽 세번째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총장, 네번째가 샬롬 김 학장

쉐퍼드대학교

“성경 입각한 수준 높은 기독교 교육”

ATS, WASC 인가 갖춘 기독교 종합대학교

“교회를 섬기고 수준 높은 기독교 교육으로 세상을 발전시킨다.”

쉐퍼드대학교의 사명선언문 중 일부다. 세상의 교육이 갈수록 성경적 기준과는 멀어지고 있는 요즘, 쉐퍼드대학교는 성경적 기준을 지키려 할 뿐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쉐퍼드대 총장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박사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학생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가르친다.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며 나의 기쁨”이라고 설명했다. 신학대학원의 샬롬 김 학장은 “우리는 학생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학생회장 제니스 최씨는 “교수들이 학생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해 주신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품고 기도하신다”고 말했다.

1999년에 이성연(리처드 코넬리) 박사에 의해 설립된 쉐퍼드대는 현재 신학, 간호학, 음악, IT 등 단과를 갖춘 종합대학으로 성장했다. 북미 주류신학대학원들의 학위를 인가하는 ATS의 정회원이며 한인이 세운 학교 가운데에는 유일하게

WASC와 ACICS의 정회원 후보 자격도 갖추고 있다. 현재 재학생은 약 700여 명이다.

이 학교의 큰 강점은 막강한 교수진이다. 신학 분야에서는 오르티즈 박사가 대표적이다. 그는 한국어로도 번역된 저서 <제자임니까?>를 저술했으며 남미 기독교 부흥 운동의 선구자, 1974년 로잔대회 주강사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35년간 풀러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며 전세계 선교학과 문화인류학의 흐름을 주도했던 찰스 크래프트 박사도 현재 이 학교 교수다. 음악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베이스 연주자 아브라함 라보리엘, “내 이름 아시죠”를 부른 CCM 가수 토미 워커가 교수이며 IT 분야에서는 픽사와 드림웍스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가르치고 있다.

이 학교는 오는 12월 4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입학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학교 설명회와 투어를 실시한다. 학교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shepherduniversity.edu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소) 3200 N. San Fernando Rd. Los Angeles, CA 90065, 전화) 323-550-8888

이윤형 기자

OC목사회장, 평신도연합회장 취임

최근 제37회 총회에서 오렌지카운티목사회장에 당선된 광재필 목사가 오는 11월 30일 오후 4시 40분 엘림선교교회(박대근 목사, 1421 W. Ball Rd. Anaheim, CA92802)에서 열리는 이취임식에서 회장에 취임한다.

한편,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오렌지카운티기독교평신도연합회의 회장 이취임식이 감사한인교회(김영길 목사, 69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90620)에서 열리고 윤우경 회장이 취임한다.

김나래 기자

· 새벽강단 기

영적 파장을 일으키라

본지는 남가주 한인교회들의 새벽 설교를 집중 조명하여 새벽 제단에서만 내리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개교회를 넘어 지역과 미주 전역의 부흥을 함께 소망하고자 한다.

그라나다힐한인교회(백동흠 목사)는 올해로 교회 창립 18주년을 맞았다. 3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으며 영적 혼돈의 시대에 밖으로는 음부의 권세를 막아주는 교회, 안으로는 성도의 피난처가 되며 이 땅을 지켜주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백동흠 목사는 지난 25일 새벽 강단에서 삼상 7장 13-14절을 본문으로 “영적 파장을 일으키라”는 말씀을 전했다.

영적 파장을 일으키라

기도를 하면 영적 파장이 나온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기도의 삶을 살면 영적 실체가 느껴지는 것을 경험해 보았는지요? 기도를 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파장이 나와 평강이 전달되고 치료가 전달되고 평화의 파장이 나온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았는지요?

막는다 개념은 무엇인가?

삼상 7장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육의 세계에서는 막았다는 개념이 성벽을 쌓거나 진지를 구축해서 적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적 기운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기운이 더 강한 힘이 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더 강한 영적 기운이 파장이 되어 철옹의 성이 무너지게 했고 요단강을 갈라지게 해서 건너가



백 동 흠 목사
그라나다힐한인교회

되는 놀라운 사회 현상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자

그런데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이런 영적 현상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사무엘이 누군데 사무엘이 살아 있는 날에만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삼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임*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군중으로 모여 있으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와 열기가 있어야 되는 줄 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작은 무리, 그 중에서도 단 한 사람의 기도자만 있어도 기적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눅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주님은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그 땅을 지켜 주신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조용히 기도하는 한 사람의 사무엘이 있다면 그 땅을 지켜 주시고 그 이상 음부의 세력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 주시며 진정한 화평과 풍요로움을 그 기도의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사무엘의 영성을 소유하여 영적 파장을 일으키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아멘

게 한 것도 강한 영적 파장의 힘이었습니.

이 강한 성령의 운행하심이 파장이 되어 그 지경의 국경을 지키심으로 블레셋의 세력이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 현상을 “여호와와 손이 막았다”고 말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내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삼상 7장 14절: *이스라엘이 그 지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첫째는 블레셋 사람들(어둠의 영)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 주고 있는 그 영적 안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로 찾았다는 것은 영적 권세를 도로 찾았다는 것입니다. 마약, 갠, 도박 그리고 각종 음란함과 부도덕성 그리고 조직적인 동성애의 세력과 무신론주의자들의 술책들과 모든 부정과 부패와 도적들과 강도들의 세력이 무너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권세가 회복되고 성도들의 권위가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게 됩니다. 성실한 사람들이 득세하기 시작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사회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서로가 존경하며 화평으로 하나가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 빛 한 의 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 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DK HEALTH INSURANCE, INC.

건강보험 전문회사 DK 건강보험(구 하나건강보험)이

65 세 이상의 메디케어 건강보험 과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을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강 보험 플랜을 취급합니다)

213-500-4563
ID:DKHEALTH

오바마 건강보험 (Covered CA)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에이전트로 부터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카카오 계정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로 최고의 고객만족을 제공 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현재의 소득이 10% 이상 증가하거나 10% 이하 보험료가 줄었습니까? 가족구성원의 수가 변화했습니까? 현재의 건강보험을 2015년에도 유지 하고 싶습니까? 저희 DK 건강보험에 연락 주세요, 혹은 카카오계정을 이용 하시면 더욱 편리 합니다.

1. 손님의 요구에 따라 각 카운티와 계약된 모든 건강보험을 보험료와 보험혜택을 꼼꼼히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2. 정부의 건강 보험 플랜이기 때문에 메디칼 그리고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과의 소득에 따른 연관성이 있습니다. 플랜 가입후 메디칼에 대한 고객 서비스 그리고 각 헬스 플랜에 따른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처방약이 보장되는지 그리고 의료 외 혜택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항상 여러분곁에 있습니다. 카카오 계정 DKHEALTH 나 213-500-4563 을 기억 하십시오.)

메디칼 메디케어 특별 필요 플랜도 도와드립니다
1.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을 분석하고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가장 맞는 건강 보험을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처방약 비용 분석, 처방약 보장 분석, 치과 혜택 분석, 안경테 렌즈, 보청기, 헬스클럽등의 배니핏이 최대한 보장되는 플랜을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2. 당뇨질환이나 심장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메디케어 건강 보험
3. 신장투석을 하고 있습니까? 신장투석을 하거나 신장이식을 하신 분들을 위한 건강 보험 등을 분석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메디칼과 메디케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
메디칼과 메디케어의 통합에 따른 여러가지 건강 보험중에서 고객에게 가장 맞는 건강 보험을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DK 건강보험은 메디케어의 신청 메디칼의 신청 엑스트라 헬프 플랜의 신청 그리고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의 신청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특 서비스를(카카오 계정 DKHEALTH 혹은 213-500-4563을 저장하세요) 제공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카카오 톡을 통해 건강보험의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신분이나 세금을 내신 기록에 따른 보험료가 달라 질 수 있지만 최대한 저렴하며 보험가입자의 혜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세부터 65세 까지의 모든 건강 보험을 도와드립니다.
65세 이상의 건강보험도 도와드립니다.

DK HEALTH INSURANCE, INC.
(구, 하나건강보험)

DKHIS.Inc
LIC #:0146629

문의 전화 **1-855-386-3088, 1-213-500-4563**
LA 본사 주소: 520 S VIRGIL AVE #204 *샌 디에고, 오렌지 카운티, 다이아몬드 바에도 오피스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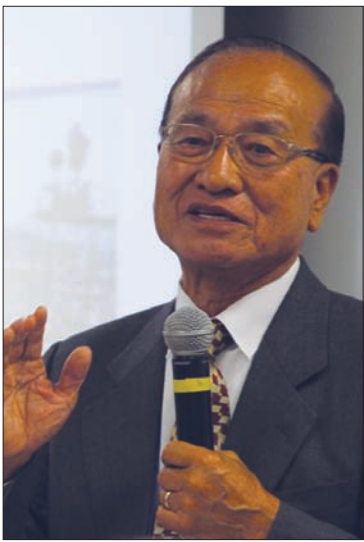
아시아 선교 어떻게? 한국의 민족복음화 운동처럼

원로 선교학자 노봉린 박사, 동서선교연구개발원 강의



이 세미나에는 아시아 선교에 관심이 있는 한인을 포함해 다양한 민족들이 참석했다.

세계 최대의 인구 45억 명이 거주하는 곳, 그러면서도 복음화율은 5%도 채 안 되는 곳, 바로 아시아다. 아시아를 보다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미국에서 가장 왕성히 활동 중인 선교학자 노봉린 박사가 동서선교연구개발원이 21일, 22일 개최한 가을 세미나에서 이에 대해 강의했다.



노봉린 박사

부 극단적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는 교회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으로, 한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성장을 이루었다. 노 박사는 1978년 CCC의故 김준곤 목사가 쓴 "Six Churches Everyday: Korean Church Growth"란 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두 번째는 상황화(Contextualization)에서 세계화(Globalization)로 선교적 방향이 변화하고 있던 점, 세 번째는 미디어의 발전이다. 19세기 후반만 해도 '해당 국가의 전통과 문화를 어떻게 복음과 연결시킬 것인가'라는 토착화(Indigenization) 문제가 선교의 이슈였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WCC가 해당 국가의 정치, 사회 상황을 선교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며 상황화에 대한 관심이 시작됐고 남미의 해방신학, 한국의 민중신학과 같은 상황화 신학들이 탄생했다. 그러나 요즘 아시아 선교에서는 토착화나 상

황화에 대한 고민보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 세계화된 현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 중시될 수밖에 없다.

이제 아시아 선교가 긴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노 박사는 그 나라 국민이 그 나라를 복음화 시키는 것을 첫 번째로 꼽았다. 그는 "서구권 백인 선교사들은 '우리가 전세계를 복음화 한다', '우리가 그 나라를 복음화 한다'고 하지만 전체 인구 중 극소수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정말 한 민족을 복음화 할 수 있나? 나도 선교사를 해 보니 선교사는 그 나라에 왔다가 언제든 떠나는 사람이더라. 그 나라에 사는 그 국민, 그 민족이 그 나라를 복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 4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영어로 강의하던 그는 이 대목에서 갑자기 한국어로 "민족복음화 운동"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한국이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교회 성장을 이룬 것은 선교사들의 수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민족을 복음화 하겠다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 선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교사 중심이 아닌 그 민족 중심의 민족복음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 나아가 이를 위해서는 그 민족의 리더를 가르쳐내는 신학 교육이 중요하다. 이 교육은 서구 신학자들에 의존한 서구 신학이 아니라 아시아인들이 아시아들을 가르쳐 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노 박사는 거듭 강조했다.

또 하나는 선교사의 재배치다. 특정 국가, 특정 지역에만 편중돼 있는 선교사들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다시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 박사는 선교지에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의 균형도 강조했다며 중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동원해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동서선교연구개발원(East West Center For Missions Research & Development)은 풀러신학교 선교학 교수인 박기호 박사를 중심으로 선교 포럼과 세미나, 선교사 돌봄 및 출판 등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미주비전교회가 새성전 입장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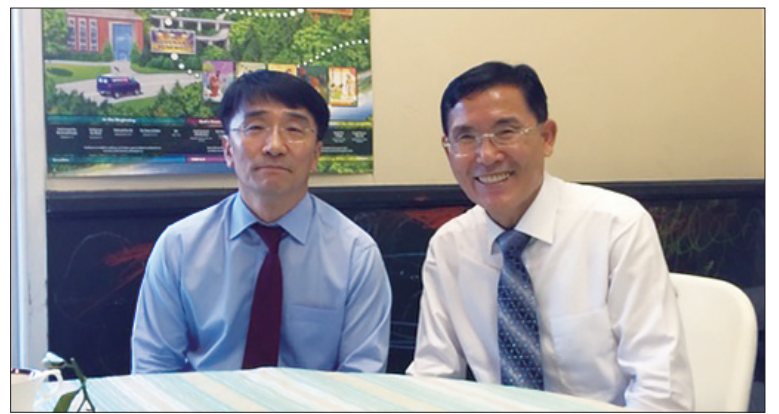
미주비전교회 새성전 입장 예배

지난 추수감사주일 미주비전교회(이서 목사)가 새 성전에서 입장 예배를 드렸다. 이서 목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설교를 전했다.

운 힘이 생긴다. 날마다 감사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새 성전에서 소수의 헌신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반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주소)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92801 전화) 714-999-9900 문소현 기자

이 목사는 "감사는 할수록 놀라



간중집회를 마친 후, 방익수 담임목사(좌)와 이영무 목사(우)

절대 주권자에게 순종하라

얼바인에 위치한 사랑의방주교회(방익수 목사)에서 지난 23일 주일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사나이'라는 별명을 가진 전 국가대표이자 감독이었던 이영무 목사의 간중집회 '하나님의 국가대표'가 열렸다. 그는 "축구에서 심판과 감독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축구 경기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랑의방주교회 성도들은 매주 목요일 저녁과 주일 저녁 아들과 아버지가 한 팀이 되어 타인종들과 축구 경기를 해 오고 있다.

문의) 949-654-0191 문소현 기자

기독일보

편집국: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이인규
고문변호사: 정찬용
지사망: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드, 시애틀
대표전화: (213) 739-0403 / E-mail: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Christianity Daily
주소: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사: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총판전화: 1701 W Orange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323.737.8888 (8월말~10월말 - 서부인삼발판) T.213.453.6624 (이리왕마케팅일구)

홍삼순액

100%홍삼농축액

100g 소비자가	\$90	240g 소비자가	\$185
2개 구입시 \$150		2개 구입시 \$370	
3개 구입시 \$180		3개 구입시 \$555	
4개 구입시 \$230		4개 구입시 \$450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선교와 회복을 위한

창립 35주년 추계 대부흥집회

주제: **회복되게 하소서**

날짜	시간	본문	제목
11/28 (금)	저녁 7:00	요한복음 3:16-17	구원이란 무엇인가?
11/29 (토)	새벽 6:00 저녁 7:00	베드로 전서 5:1-6 사도행전 1:6-8	은혜가 내리는 사람 성령을 받으면
11/30 (주일)	오전 8:00 (1부 예배)	마태복음 20:1~16	하나님의 공평
	오전 9:30 (2부 예배)		
	오전 11:00 (3부 예배)		
	오후 6:00	마태복음 28:16~20	한국 교회의 과거와 미래

강사: 이필재 목사
한국 갈보리교회 담임목사 역임
토렌스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역임

토렌스제일장로교회
Torrance First Presbyterian Church

(310)618-2222 • www.1church.com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100% 온라인, 100% 한국어로 신학교육 기회 활짝

미드웨스턴침례신학교 한국어 온라인 석사 과정



미주리 주 캔사스시에 있는 미드웨스턴침례신학교의 전경

남침례회(SBC) 산하 6대 신학교 중 하나인 미드웨스턴침례신학교(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www.mbts.edu)가 다양한 한국어 온라인 학위 과정으로 전 세계 한인들에게 교육의 문을 활짝 열었다. 이 학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를 성경적 교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및 제자를 만드는 사람으로 키우 교회를 섬기는 것'을 기치로 1957년에 설립됐다. 규모 면에서 미국 내 10대 신학교에 속하는 미드웨스턴은 북미주 주류 신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와 미국 내 중북부 지역 중합대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HLC-NCA(Higher Learning Commission of the North Central Association)의 인가를 모두 갖추고 있다.

100% 온라인, 100% 한국어 과정 MATS 학위 주목

이 학교가 속한 남침례회는 이미 2010년 총회 이래로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와 그 후손들을 선교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선교의 주체로 인식해 왔다. 이런 변화를 반영하듯, 이 학교는 그동안 신학연구 석사(MATS), 목회학 박사(D.Min.), 목회교육학 박사(D.Ed.Min.) 과정을 한국어로 개설한 바 있다. 이중 MATS 과정은 총45학점으로, 목회자는 물론 전문사역자, 평신도 리더들에게 추천할 만한 과정이며 한국어 수업이 100%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현재 이 과정에는 평신도 선교사 희망자, 신학 관심자, 교회 지도자 및 목회적 소명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사모들이 공부하고 있다. 북미에 거주하는 이들도 많지만 한국, 일본, 홍콩, 브라질, 캄보디아 등 다양한 국가로부터다.

D.Min., D.Ed.Min.을 포함해 미드웨스턴의 대부분 학위는 타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 학위 과정의 절반 가까이 인정해 준다. 편입하는 학생들의 학업에 효율성이 크다 뜻

이다. 이 MATS 학위도 이런 맥락에서 타 학교의 학점을 21학점까지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러나 미드웨스턴이 타 학교의 학점에만 후한 것은 아니다. 재학생들의 지속적 학업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길을 열어 놓은 것도 특징이다. MATS 재학생은 졸업 즈음에 캡스톤 크레딧 3학점을 더 이수하면, MATS 학위를 MTS 학위로 변경해 수여받을 수 있다. 3학점 차이지만 일반적으로 MATS(Master of Art in Theological Studies)가 학문적으로 신학 초입에 해당한다면 MTS(Master of Theological Studies)는 좀더 전문적 관점에서 신학에 접근하는 학위로 통한다.

상담학 MTS 인기, 올해 M.Div.도 개설

그동안 이 MATS 학위를 온라인으로 제공해 오던 미드웨스턴은 최근 MTS with Counseling 학위과정도 개설해 운영 중이었다. 상담학 분야를 특화시킨 신학석사 과정이다. 현대사회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담사역에 대한 목회적 수요를 고려해서 한국어로도 개설된 것이다. 나아가 올해부터는 목회자 양성 코스라 할 수 있는 M.Div. 학위도 시작한다. 온라인 신학 과정을 제공하는 수많은 신학교가 있지만 M.Div. 과정을 100% 온라인, 한국어로 제공하는 주류 신학교는 거의 없다. 이 과정은 현재 MATS 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본인의 소명과 선택에 따라 M.Div.로 학업을 이



한국부 신학연구석사원장 정우현 교수와 한국부 학장 박성진 교수

어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되어 있다.

온라인은 통신과정? 편견일 뿐

한국부 학장 박성진 교수는 "온라인 강의라고 해서 결코 수업의 질이 떨어지거나 학위를 쉽게 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일단 주류 신학교에서 Ph.D. 학위를 받은 우수한 교수진이 포진해 있다. 또 박 교수는 "학교 자체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일반 수업 상황 하의 학생들에 비해 동등하거나 월등하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도 이 조사 결과에 놀랐다. 온라인 과정을 단순히 과거의 '통신 과정'과 비교해선 안 된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미드웨스턴 온라인 과정의 학생은 상당한 양의 토론 과제를 글로 표현해서 매주 업로드 해야 하고 교수들도 학생들이 시시각각 올리는 질문과 숙제에 정해진 시간 내에 일일이 답해야 한다. 교수들도 수업에 대충 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교사 섬김에도 앞장

미드웨스턴은 한국어 과정들을 선교사 훈련 단체에도 개방해 놓았다. 신학 재교육을 받기 어려운 선교사들에게 학교가 갖고 있는 우수한 강의를 제공하고 그들도 학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 교수는 "평소 성경과 신학에 관해 공부하기 원했지만 시간과 장소의 문제로 망설였던 분들에게 권하고 싶다. 특히 교회 안에서 평신도 리더로서 소양을 갖추고 싶거나, 향후 목회에 대한 소명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권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학교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며 교회의 실제 사역을 뒷받침해 주는 데에 가장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816-414-3754

김준형 기자



미주한인전국재단이 전국지도자대회 일정 중 '한반도에 찾아오신 하나님' 출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미 한인목회자 55명 기고 엮어

<한반도에 찾아오신 하나님> 발간

미주한인전국재단 전국지도자대회 개최

미주한인전국재단(이우호 총회장)이 이민목회자들의 기고를 엮어 "한반도에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제1부 미주한인전국재단을 말한다'부터 시작해 '제2부 미주한인의 뿌리를 찾아서', '제3부 오늘을 사는 미주 한인 그리고 교회', '제4부 미주한인의 소명과 나아갈 길', '제5부 미주한인 목회자 수상', '제6부 미주한인목회자 논단', '제7부 특별기고' 등으로 구성돼 있다.

55명의 목회자, 7명의 평신도가 기고했으며 LA 지역에서는 총 22명이 기고했는데 대표적으로 송정명 목사가 "미주 한인 이민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상명 목사가 "도산 안창호, 격랑 이는 바다에 배를 띄우다", 정요한 목사가 "시대적으로 본 미주 한인 이민 역사", 한기형 목사가 "한인 이민자가 미국의 주인으로 사는 길", 박희민 목사가 "미국을 부흥케 할 세 개의 기둥", 민종기 목사가 "요셉과 다니엘로 본 이민교회의

사회적 사명" 등을 썼다. 이 외에 워싱턴DC 지역 목회자가 28명 기고했고 그 외에는 미주 내 다양한 지역이다.

임용근 전 의원은 축사에서 "이민 111주년을 맞이해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와 전통의 길, 바른 길, 정직한 길을 가르치기 위해 전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들로부터 글을 모아 책을 발간한 것은 의미가 참 크다"고 밝혔다.

한편, 미주한인전국재단은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LA에서 2014 전국지도자대회 및 차세대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했으며 동아시아 정세와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할, 미국의 신앙 부흥을 위한 미주한인 기독교인의 책임과 의무, 미국 선거 후 정치 변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제안 등 다양한 주제를 강연을 열었다. 마지막날에는 신학생 20명에게 장학금을 500달러씩 전달했다.

김준형 기자

사도 바울의 발자취 찾아가는 터키 여행



하나투어의 김상준 과장

하나투어가 터키부터 그리스까지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성지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LA를 출발해 이스탄불, 앙카라, 갑바도키아, 콘야, 파묵칼레, 버가

모,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카, 아테네, 고린도 등을 11일간 순례하는 일정이다.

라오디게아·빌라델비아·사데·버가모·서머나·에베소·두아디라 교회 등 소아시아의 7대 교회를 방문하는 것 외에도 지중해의 베르사이유라 불리는 돌마바흐체 궁전,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오는 아데미 신전과 트로이 유적지, 파르테논 신전 등도 둘러 볼 수 있다.

터키 여행을 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하나투어 김상준 과장에게 문의하면 된다.

문의) 213-674-2162

문수현 기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8:12

LIGHT HIGHERCALLING14

2014 미주청년학생 Conference

다음세대가 빛 되신 예수그리스도를 만나야합니다

www.gohighercalling.com
Dec. 21-24 2014 / San Diego
 \$195 by Dec 8, \$245 by Dec 21

SPECIAL GUEST SPEAKERS
 JIM-BOB PARK - Senior Pastor, OMC
 EUGENE CHO - Lead Pastor, Quest Church
 GREG STIER - Dare 2 Share Ministries
 DONG WHAN KIM - National Director, KCCC and MANY MORE!

DECEMBER 21-24, 2014

TOWN AND COUNTRY RESORT & CONVENTION CENTER
 500 Hotel Circle North, San Diego, CA 92108

Phil Wickham Concert

HIGHER CALLING MAIN OFFICE : 1636 W. 8th Street #100, Los Angeles, CA 90017
 Phone : 213.389.5222 | Email : LAoffice@highercalling.org

말은 자에게 구할 충성

고린도전서 4:1~13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1. 교회는 택한 자를 불러모은 곳

교회는 본래 이름이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불러내신 장소라는 뜻입니다. 즉, 죄악에 찌들며 지옥길로 쫓달음치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천국 들어갈 자격 갖추실 수 있는 진리의 교회로 불러 모아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영적인 내세소망을 가꾸는 곳으로만 활용되어야 하겠습니다.

2. 일꾼은 종들 중 가장 비천한 노예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일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 '휘페레타스'로 종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노예를 이르는 말입니다.

교회의 목자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목자로 더불어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거나 직책을 맡으면 그 시간부터 예수님을 위한 '휘페레타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일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표현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마음을 가졌기에 항상 성령에 충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양시간에 영적 소망을 더불어 가꾸면서 그 믿음이 진정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내세 소망의 목적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목자와 모든 것이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사명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고, 이 목자에게 계신 성령이 그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공감(共感)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목자를 통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에 성도들도 함께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목자의 사역에 기쁜 마음으로 조력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모여 있을 때야말로 바로 영적 공동체, 예수님의 몸이 아니겠습니까?

1절 하단에 있는 '비밀'이라는 말은 '무스테리온'인데 감추어 있던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 것이라는 뜻으로 이것은 공개된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아직 덜 알려진 부분,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이란 이 교회의 직분자들과 직책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보더라도 확실히 거듭난 사람과 같이 옛사람과 그 행실은 다 없애고 생각이 건전하고, 말이 진실하고, 행동이 성실함으로 확실히 달라졌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을 일꾼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3. 집사란 하나님의 일을 손에 쥔 사람

2절의 말은 자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이스', 우리말로 집사(執事)로서 하나님의 일을 손에 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이 일을 놓지 않고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쥐어주신 일로 생각하고 직분과 직책을 감당할 때 온전히 말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가 직분을 빼앗기고 자살했을 때 예루살렘의 모든 이들이 그 처참함을 보게 되고 결국 지옥에 갔습니다. 그 직분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직분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은 중심의 정성을 모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오로지 주님만을 위하여 더 잘 섬기자는 목적으로 내 생활이 그 소원에 끌려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건강과 물질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고린도교회는 사도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와 더불어 세웠습니다. 이후에 고린도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사도바울을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린도교회가 목자가 필요하게 되자 베드로도 갔었고, 아볼로도 갔었으나, 그 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영적 지도자를 구분해 가면서 말쟁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고린도교회 사람들이 영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주장이나 이론을 내세워 그들을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에 대하여 말을 만들어 험담하고 패당을 짓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 패당짓는 것을 없애주기 위해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3~4절)"고 했습니다.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회개해서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가 죄 지은 것이 없고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여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은 그곳에는 바울을 나쁘다고 말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즉,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

서 영적인 은혜 분위기에 혼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마귀적 역사인 것입니다. 지도자를 자주 판단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지도자를 통해서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최고학부를 마치고 그 시대에 세계가 존경하는 석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를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 성령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의 제자로 영적 지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6절에서는 이런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패당을 일삼고 또 그 패당의 세력 확장을 위하여 모략중상을 하면서도, 자신은 은혜 받고 구원 얻은 성도라고 떠벌리니까 너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임을 알고, 네게 주신 성령을 받았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느냐고 7절에서 꾸짖고 있습니다. 패당을 짓는 것은 왕조가 되고 싶거나 그 왕조 그늘에서 행세하고 대접받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4.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

고린도교회의 임지적 여건은 동양과 서양의 교차지점으로 무역이 가장 성행하는 곳이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장사꾼들로 돈이 많아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돈으로 교회 안에서도 행세하며, 패당을 일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걱정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고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 노릇 하였도다"는 말씀은 목자는 제쳐놓고 교회를 자기 맘대로, 생각대로, 욕심대로, 험기대로 쥐고 흔들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이것은 순교를 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쓰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진실로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원한다 함은 순교적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서 왕 노릇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너희가 진정한 자격을 갖추어 가기를 소원한다는 말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28절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육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사심에 하나 감한 때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과선하는데 일 주야를 깊은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처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지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험뻣하였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목양시간에 신앙노선이 일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체질 신앙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즉, 같은 성령으로 하나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 교회적 사명의지에 일치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며 선교에 합심전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토요일 서부 오후 9시	동부 오후 7시30분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 월요일 오후 5시 / 하이라이 현시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교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201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1-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F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 규원사학)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박사 전공) .
- 한국상고사(교조신, 고구리, 백제, 신라, 발해) 전공은 일제 식민사학 (단국신학)이 아닌 전통학사사 한단고, 규원사학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계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장로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1mjeongul@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us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아름다운교회 성가대반주자 모집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로렌하이츠에 위치한 아름다운교회에서 사역에 함께 하실 성가대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원자격은 음악전공자나 교회성가곡 반주를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연습시간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부터 9시 15분까지 또 주일에는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 사이로 주일예배 전후로 1시간씩 연습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이며, 간단한 인터뷰와 오디션이 있습니다.

E-mail: dhpark2430@gmail.com
문의 : 213-605-6015
성가대지휘자 김도희

종말론적 신앙을 가집시다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회

새벽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이 가진 종말론적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리라'는 약속과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 약속은 이삭에게 야곱에게 반복됩니다. 더욱이 야곱이 이집트의 고센 지방의 라암세스로 이민을 가게 된 때에도, 그는 이러한 미래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야곱이 147세가 되어 이집트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는 아들 요셉에게 그의 시신을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맹세시킵니다. 그곳 선영에서 잠들기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몸은 라암세스에 있지만, 그는 가나안을 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고센의 나그네 생활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는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것과 요셉이 장자로서 에브라임

과 므낫세, 두 뿔의 기업을 분배받으리라는 예언을 합니다.

가나안에 대한 믿음은 이집트의 현직 총리를 지내고 있는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죽어가면서, 후손들에게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올라가 달라고 유언합니다. 오직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후손들이 차지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가진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입니다. 말세지말, 즉 말세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종말신앙이 필요합니다.

창세기에 출현하는 믿음의 조상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종말론은 죽은 뒤에 생각할 우리 신앙의 부록이 아닙니다. 종말신앙은 우리의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셉이 고센에 처소를 정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처소도 이집트의 타락한 문명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한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요셉이 가나안에서 가장 가까운 고센에 처소를 정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마련하여 주시는 천국의 처소를 사모하여야 합니다.

미래의 나라에 마음을 두는 성도는 이 땅의 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인은 땅에 살아 있으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부모님께 감사



제이슨 송 교장
새연약초중고등학교

필자의 아버지는 14년 전 11월 19일에 소천하셨다. 화장암이란 병명 판단이 나온 후 약 45일만에 돌아가셨는데, 그 때 연세가 68세이셨기에 요즘으로 치면 너무 "빨리" 가신 편이다.

정기적으로 자식들이 손자 손녀를 데리고 찾아볼 때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셨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 당시 필자의 아내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고, 큰 녀석이 한 살이었기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아이를 키우는 아빠가 되어 필자도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기에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자라가고 있었는데, 그걸 표현할 시간과 기회도 주지 않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아쉽기만 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참 많이 울었다. 처음엔 눈물이 쉬지 않고 쏟아졌다. 그러나,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일년 이년 시간이 흐르며 눈물이 메마르기 시작했고, 마음도 덩그러니 되었다. 하지만, 가끔씩 어떤 장소, 어떤 사람, 어떤 기억, 어떤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께 대한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으면 때론 왈칵 감쪽 놀랄 정도로 눈물을 흘린다. 까마득히 잊고 사는 것 같은데 아버지께 대한 기억은 마음 속 깊은 어느

곳에 뿌리를 두고 있나 보다. 지난 주일 그런 일이 있었다. 벨리에서 12년 간 살다가 다시 한인타운 인근으로 이사온 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온 교회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 이젠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만, 가끔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풋풋한 정을 느낀다. 지난 주 예배 후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바로 앞 테이블에 아버지 친구분들이 앉아 식사를 하고 계셨다. "살아계셨다면 아버지도 저분들과 비슷하실편데"란 생각이 마음을 스치고 갔다. 몇몇 분께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식사를 마친 후 일어나려는데 한 분이 다가와 봉투를 건네주셨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 사 주라시면서 용돈을 주신 것이었다.

그런데 나를 울린 것은 그 봉투에 써 놓은 "아버지 친구들"이란 표현이었다. "아버지의 친구분들은 먼저 가신 우리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에게 용돈을 주셨구나. 만약 살아계셨다면 아버지가 이런 용돈을 주셨겠지"라고 생각하니 마음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아버지께 대한 생각과 감정이 솟구쳐 올라왔다. 아이들과 아내 앞에서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아버지! 그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요, 고귀한 이름인가? 철 없었을 땐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내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 정말 귀하고 감사해서, 고개를 숙여 정중히 부르고 싶은 이름이다.

매년 NCA학교에선 추수감사절 방향을 맞으며 축제를 갖는다. 우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학부모, 교사, 학생, 우리 주위 모든 이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이벤트다. 올해에도 학생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을 초청했다.

그 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닌가? 감사하자. 감사를 표현하자.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과 정성으로 하자. 그런 모습을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 아이들에게 보여줌으로 믿음의 유산 또는 전통으로 남겨보자.

기회를 보는 눈, 핵심을 읽는 눈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회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크레이턴 메이브럼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부대원들이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 절망하고 있을 때 장군은 "이제 우리가 전쟁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사방을 공격해 한꺼번에 적군을 섬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 자, 사방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외치며 부대를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러자 부대원들이 용기를 얻고 전투에 임해 결국 기적 같은 승리를 얻었습니다. 위기 속에 숨겨진 기회를 찾는 메이브럼 장군의 탁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기회를 얻고 싶어 합니다. 기회가 찾아오지 않기에 기를 펴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기회를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기회를 만났지만 그것을 기회로 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리라" 에베소서 5:16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시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원문의 뜻은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기회를 기회로 볼 수 없도록 세상이 그만큼 혼돈스럽다는 말입니다. 통찰의 사람은 혼돈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기회를 얻어도 핵심을 볼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만가지 주변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가지 핵심가치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핵심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을 읽는 눈의 차이에서 인생의 결론이 갈렸습니다. 롯은 풍성함을 가지로 여겼지만, 아브라함은 관계를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결과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아브라함에게로 향합니다.

리처드 칼슨이 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Don't sweat the small stuff)'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좋습니다. 핵심을 읽는 눈

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크리스 주크가 쓴 "핵심에 집중하라"라는 책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 책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올림포스에서 에베레스트까지 4000마일에 이르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지역을 단 4년만에 정복하고 다스린 이유가 언급됩니다. 핵심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떠난 후 몇 년도 채 되지 않아 그 거대한 제국이 와해된 이유도 핵심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핵심을 읽는 통찰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인생 속에 기회의 물줄기를 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은 통찰의 눈으로 그 기회를 정확하게 포착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 속에 자리잡은 핵심가치에만 집중합니다. 아무리 자신을 흘리는 주변가치가 있어도 그것에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기회를 보는 눈, 그리고 그 기회 속에 담겨있는 핵심을 읽는 눈이 우리의 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통찰의 눈을 허락하십시오."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과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셀라케어 효능사례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발작, 자폐증, 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원자력 피해	일본 2세 남자아이 원자력 피해로 말 못하고 걷지 못했으나 M3 세트 2달 복용후 말하고 걸을 수 있게 됨 토요타 빅토리아 8180-1339-2069
심한 부정맥, 해소, 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옥현(77세)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M3세트를 주스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호전 반응 겪고 완치됨. 그후 4년뒤 뱃속을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완쾌. 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
간질과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발작을 해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증세도 호전됨. 복용 후 190kg가 125kg로 되고 시력, 피부, 머리카락 좋아짐. 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속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 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
대장암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세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6개월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비만, 우울증, 야뇨증	여섯달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야뇨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된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세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직전의 다리와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오일동(52세, 가디나)
심한 알러지, 우울증, 불면증, 복내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새우는 고통 중 M3세트 복용3일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정수재(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
심장병, 담석, 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잦은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약성 변화와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심한관절염, 변비, 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중풍마비, 당뇨, 고혈압	15년 동인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민현자(65세, 방배동)
등 수술후 심한 손떨림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 부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선(63세, CA 토렌스)
자폐증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발끝이 너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 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졌으며, 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진(16세, 엘에이)
췌장암 말기	60세 중반에 가장 힘들다는 췌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세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면서 부터 기적적으로 췌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피터 리(65세, 엘에이)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 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자가 면역 질환	희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종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랭(뉴저지)
모유 아주적음, 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신생아기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푹들해졌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좋다는 약을 찾던 중 M3세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 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훈(76세, 한국 대구)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조인숙(53세, 시카고)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장도 들기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갔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었짐. 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
전립선암과 부정맥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파킨스 병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찬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번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도 되고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최정석(50세, 엘에이)

건강과 성경 이야기 30

요즘 현대인들은 공기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식품첨가물, 항생제, 방부제, 화학 약, 중금속의 독소, 담석, 스트레스, 콜레스테롤, 과로 등으로 간과 심혈 관과 오장육부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 간질환, 지방간,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질환, 비만, 변비 등의 성인병, 만성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간과 신장은 주로 해독작용을 하는데, 간은 장군지관(將軍之官)이라고 하여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고, 간장혈(肝臟血)이라고 하여 혈액을 저장하고, 파극지본(罷極之本)이라고 하여 피곤한 증세가 간에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신장은 정기를 높여주는 힘이며, 정력, 허리, 관절, 성기능의 개선을 유도하고 원활한 이뇨작용(소변)을 통하여 피 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밖으로 배설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간 기능을 회복하고, 강한 신장을 만들어서 활기찬 생활을 할수 있는지, 성경을 잠시 보신 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기록으로서 1장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구약성경의 창세기, 여호수아기, 룻기, 열왕기와 역대기 상하에서 나오는 인물들이며, 시편, 잠언, 아가서를 기록한 분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1장1절로 중간중간

게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나오는 살몬은 아마도 여호수아기에서 나오는 두 정탐군 중의 한명으로 추정되며, 그 살몬이라는 사람이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 보아스는 룻기의 주인공인 룻과 결혼하여 다윗왕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다고 합니다. 6절- 다윗은 우리야장군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게 되는데, 7절에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함으로서 하나님께 잘못하여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9절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15년을 더 살게 되었고, 11절은 이스라엘 국가가 바벨론 국가에게 점령당하고, 그 바벨론은 바사제국에 의하여 또한 망하게 되는데, 12절-스룹바벨은 끌려갔던 나라에서 최초로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를 귀환시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16절에서는 바사제국도 망하고, 로마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식민지 생활을 할때에 예수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23절에 또 한번의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구약성경의 창세기, 여호수아기, 룻기, 열왕기와 역대기 상하에서 나오는 인물들이며, 시편, 잠언, 아가서를 기록한 분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1장1절로 중간중간

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2.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3.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6.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2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이후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더 낳습니다. 3절- 유다는 머느리 다말에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물입니다. 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팔팔)	213.386.5310	플러튼 내셔널영양센터	714.690.0120	동부총판	201.983.8333
시온약국	213.382.6485	LA벌론 마틴약국	213.382.9718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시애틀	206.331.6655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벌론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에나하임	714.469.5809	시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센루이스, 캔사스	314.570.9629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가디나	714.351.044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시카고 알바니약국	847.699.1511
에스약국	323.733.7788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H 마트 내 H 헬스 (엘바인)	949.251.0193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847.877.6346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벨리	818.642.8223	놀워크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 다운타운	213.798.3333	벨리 소망 약국	818.832.2757	파이오니아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오렌지카운티	714.795.1540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플로리다	770.457.1717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NC/SC	770.457.1717
LA 사랑방	213.351.9552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로렌하이츠	626.912.5727	캐나다	604.872.1669
LA내셔널영양센터	213.739.8874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세크라멘토, 아리조나	602.332.6492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수단 정부, 카르툼 소재 교회 강제 철거

교인들, 온 몸 던져 저지...인간 방패 만들어 항거하기도



철거된 수단 교회의 모습

수단의 북부 카르툼에 위치한 한 장로교회의 교인들이, 당국의 교회 철거를 막기 위해 인간함을 쓰고 있다고 모닝스타뉴스가 2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일부는 몸을 던지고 나머지 수백 명은 인간 방패를 만들기도 했다.

지난 11월 17일 보안요원과 경찰들을 대동한 불도저가, 수단장로복음교회(SPEC)에 속한 카르툼바흐리복음교회의 외벽과 일부 가정집을 허물었다. 현장에서 붕괴된 집 가운데 하나는 나일신학교의 부속 건물로, 기독교인 의사가 이를 빌려서 사용해 왔으나 이번 일로 그는 모든 소유를 잃게 됐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교인들은 19일부터 20일까지 인간 방패로 추가적인

붕괴를 막고자 했다. 이 같은 철거는 “교회 지도자들이 무슬림 사업가인 칼리드 무스타파(Khalid Mustafa)에게 땅의 소유권을 내주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교회 지도자들은 “정부가 중간에 세워놓은 위원들이, 무스타파와 비밀 계약을 맺어 교회 재산을 팔아넘겼다”면서 “이는 기독교를 배제시키려는 수단 정부의 음모”라고 말했다.

다우드 파둘(Daud Fadul) 목사는 모닝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최근 교회 위원회에 위원들을 심어두었다. 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교회 건물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과 똑같다”면서 “기독교를 멀리하

려는 정부의 방침을 지지하는 이들은, ‘정부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다우드 바쉬르 가달라(Daud Bashir Gadala) 장로는 “이번 사건은 수단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교회 핍박 중 하나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주기를 호소한다. 악한 힘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해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철거 시작 다음 날인 18일, 교회 지도자들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오는 12월 4일 열리는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19일 교회 사택에 거주하던 하피즈 파사하(Hafiz Fasaha) 목사에게 모든 소유를 포기하라고 명령한 후, 이 건물을 허물어 버렸다. 이에 대해 당국은 “무슬림 사업가가 이 땅을 소유했으며, 강제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원의 명령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의 청년들이 거주하던 2개의 다른 건물도 철거되었고, 거처를 잃은 청년들과 목사는 다른 곳으로 이동한 상태다. 파사하 목사는 교회 철거가 시작된 이후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창문, 팬, 철문, 냉장고, 등이 파괴돼 피해액이 수천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강혜진 기자

유버전 어린이용 성경앱 출시 1주년

한국어 버전도 공개

디지털 세대에게 우수한 콘텐츠 제공

유버전(YouVersion)이 원호프(OneHope)와 협력해서 개발한 어린이용 성경앱이 출시 1주년을 맞았다고 카리스마뉴스가 24일 전했다.

원호프의 롬 호스킨스(Rob Hoskins)는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적인 속성을 지닌 세대를 양육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디지털 사역 도구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다. 교회와 부모들에게 성경적인 내용이 풍부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그들을 돕고 있다”고 했다.

지난 8월 어린이용 성경앱은 스페인어로 처음 번역됐으며, 현재 전체 다운로드 중 1/4 은 스페인어 버전에서 이뤄지고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 버전은 지난주에 출시됐다.

개발자들은 2015년까지 9개의 언어로 된 번역본과 40개 이상의 성경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선보여, 전 세

계 어린이들이 앱을 통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리뷰를 작성한 자크 그린(Zach Green) 씨는 “이 앱은 말 그대로 성경을 삶으로 가져왔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자들에게도 매우 유익하다”고 추천했다.

멜린다 요크(Melinda York) 씨도 “나의 2살, 4살짜리 아이들이 앱을 매우 좋아한다. 나도 아이들에게 성경에 대해 소개해 줄 수 있어서 좋다. 이 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준 분들께 감사하다”고 했다.

유버전 측은 “각 이야기와 더불어 무료로 다운받아 볼 수 있는 학부 모용 자료들도 있어서, 가족 전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어린이용 성경앱은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아마존 등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강혜진 기자



어린이용 성경앱

이라크 기독교인들, IS에게서 마을 되찾고 첫 주일예배

“우리의 땅에서 떠나지 않을 것”... 민병대들, 소수종교인들 위해 싸워

이라크 북쪽 니네베 지역 대부분을 이슬람국가(IS)가 차지한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이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렸다.

이라크 교인들은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각) 주일, 모술에서 북쪽으로 약 20마일 정도 떨어진 텔스쿠프(Telskuf)라는 작은 기독교 마을의 마르 야곱교회(Mar Yacob Church)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 마을의 또 다른 교회인 세인트조지갈데안교회(Saint Georges Chaldean Church)에서는 성찬식도 열렸다. 예배를 마친 후, 사람들은 북쪽의 난민캠프로 돌아갔다.

갈데아인 타빗 마쿠(Thabit

Makku) 신부는 피데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를 포함해 마을에서 도망친 모든 기독교인들이 쿠르디스탄에서 난민생활을 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한다”면서 “특히 쿠르드인들로 구성된 민병대인 페시메르가가 이 마을을 IS에게서 되찾은 후, 이러한 열망은 더욱 커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IS에게서 마을이 해방된 후에도, 여전히 IS는 모술을 비롯한 다른 이웃 마을들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곳에서 살기에는 아직 안전하지 않다. 그러나 마쿠 신부와 다른 이들은 바로 몇 시간 전에도 마을로 돌

아와 교회의 종을 울리며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오고 싶어했다.

마쿠 신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땅에서 떠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는 곧 고향과 교회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비록 텔스쿠프는 IS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나 니네베 지역 대부분의 마을에서 IS는 여전히 잔인한 핍박을 하고 있다. 마을의 소수종교인들은 IS라는 이슬람 근본주의에 복종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많은 세금을 내거나 혹은 죽임을 당한다. 마을이 한 번 IS에 점령되고 나

면, IS 대원들은 가장 먼저 교회를 비롯한 종교 건물을 통제한다. 이들은 십자가를 철거, IS의 검은 깃발로 대체한다.

이러한 가운데 쿠르드인 민병대인 페시메르가는 기독교인과 야지디인들, 그리고 다른 소수종교인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그러나 텔스쿠프와 같이 일부 마을이 해방되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IS가 자신들의 집에 지뢰나 폭발물을 설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라크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군대인 아시리아애국당(Assyr-

ian Patriotic Party) 역시, 기독교 마을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페시메르가의 도움을 받아 IS의 지배에 있던 이라크 북쪽 마을인 바쿠파(Bakufa)를 해방시킨 후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

아시리아애국당 회원인 타비아는 IS에게서 우리의 도시들을 되찾고 기독교인들의 마을을 보호하길 원한다. 어느 누구도 IS 대원들에게 가정과 삶과 땅을 빼앗기지 않겠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라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Super Store 푸엔테힐스에서만 드리는

중·소형 교회 목회자를 위한 자동차 특별 리스

'파스터 패키지'(Pastor Package)

크레딧이 없거나 나빠도 OK!
중·소형 목회자를 위한 원가세일!

차종 : 엘란트라, 소나타, 중고차
구입서류 : 목회자 증명서,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 주보, 소득증명서





찰리 정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Tel. (213)276-8959(찰리 정)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Dealer Tel. 1-880-850-2077

제7차 워싱턴 주 주빌리 통일구국 연합기도회 개최

분단 70년 되는 내년에는 조국통일 되길 소원해



제7차 워싱턴 주 주빌리 통일구국 연합기도회 참가자들

‘워싱턴 주 주빌리(희년) 통일구국 연합기도회(지도위원 오대원 목사, 대표 권준 목사, 총무 박상원 목사)가 추수감 사절을 앞두고 지난 16일(주일) 시애틀 비전교회에서 ‘제7차 워싱턴 주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를 진행했다.

이번에 제7차로 열린 기도회에는 워싱턴 주의 3개 지역 교회의 목회자들과 2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해 더욱 뜻깊은 기도회가 됐다.

이날 기도회는 형제교회의 남성찬양 팀 ‘디아코너스’의 힘있는 찬양과 함께 권준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으며 온누리교회 천성파이어의 특별 찬양, 오대원 목사(주빌리 고문)의 말씀, 그리고 통일 연합기도회 회개 기도는 곽호준 목사(타코마연합장로교회), 화해 기도는 김경수 목사(페더럴웨이사랑의빛교회), 통일을 위한 기도는 정광호 목사(시애틀온누리

교회), 연합기도는 박상원 목사(주빌리 총무, 기드온동축선교)가 대표로 인도했으며 황선규 목사(GSM선한목자선교회)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쳤다.

오대원 목사는 ‘한반도의 소망(에스겔 37장 1-14절)’이라는 제목으로 통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심을 전하며 “마른 뼈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여 죽은 것 같은 동족들을 살려내야 할 것이다”라는 큰 도전을 심어주는 말씀을 전했다.

총무 박상원 목사는 “지금까지 7차례에 걸친 기도회에 1000여 명 이상의 성도들이 참가해 주셨다”며 분단 70년이 되는 내년에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동포들까지 누구든지 통일 기도회에 참가해 주기를 거듭 당부했다.

인종적으로 다양해지는 미국교회

많은 이민자 교인들 미국으로, 교회가 마음과 문 열어야



인종에 따라 예배가 분리되던 미국교회가 인종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사진은 남가주에서 11월 11일 다민족이 함께 기도했던 다민족연합기도회 장면.

버지니아 타이슨스에 소재한 매클린 바이블교회는 일요일에 3번 공식 예배를 드린다. 오전 9시, 10시 45분, 오후 12시 30분. 교인들은 각자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 9시 예배에는 중국어 통역, 오전 10시 45분에는 한국어와 스페인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영어를 잘 못하는 중국계 이민자들과 한인 및 중남미 이민자들이 영어로 이뤄지는 설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예배 시간이 되면 각 이민자들은 입구에서 통역기를 받아들고 예배당으로 들어간다. 예배는 인도계 여성이 인도하는 찬양팀과 흑인, 백인, 히스패닉, 아시안 등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찬양으로 시작된다.

예배당을 메운 교인들 역시, 인종적으로 다양하다. 얼마 전 예배 때는 스페인어와 영어로 함께 찬양을 했고 끝에 가서는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 등으로 찬양을 했다.

13,000여 명의 교인들이 출석하는 대형교회인 이 매클린바이블교회는 한때는 백인 위주의 교회였다. 하지만 지역 사회가 인종적으로 다양화되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인종도 다양되고 있다.

교회는 이런 변화에 맞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역 서비스가 되지 않는 아프가니스탄, 이란에서 온 이민자들을 위해 아프가니스탄 언어인 파르시어로 드리는 예배가 열리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매클린바이블교회는 인종적으로 다양화 되고 있는 미국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듀크대 전국교회연구소 분석에 따라

면 다인종으로 구성된 미국 교회의 비율은 1998년 7%에서 2012년 13%로 증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다인종 교회로 변한 몇몇 미국교회들을 소개했다.

오하이오 신시내티에 있는 사람들의 교회(Peoples Church)는 십여년 전에는 교인 모두가 백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절반이 백인, 1/4은 흑인, 나머지는 30개 나라 출신의 사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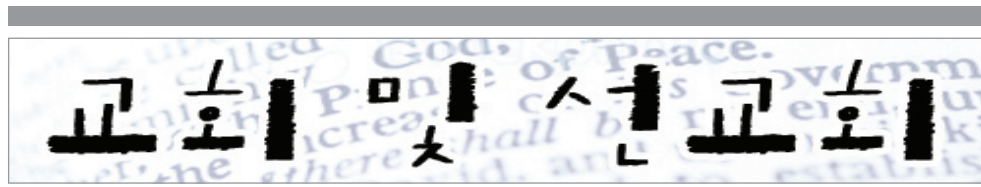
이 변화를 주도한 이 교회의 담임목사 크리스 비어드는 “다인종 사회에서 교회가 단일 인종으로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며 “교회가 인종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도시는 당연히 인종적으로 분리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칸사스 리틀락에 소재한 교인 5천 명의 한 대형교회는 교인들 대부분이 백인이다. 이곳에서 청소년 담임목사로 활동했던 마크 디마즈는 신학(계7:9-10)적인 이유로 2001년 다인종 교회를 시작했다.

미국교회의 인종적 다양화는 주로 기존의 백인교회가 다인종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민자들로 구성된 미국교회들이 백인, 흑인 등에게 다가가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골든 콘웰 신학교의 토드 존슨 교수는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미국에 이민 오고 있다”며 “이들은 미국에서 자신들의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언어로 예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슨 교수는 “이민 교회들이 이민사회를 넘어 주변 도시와 백인 커뮤니티에 다가서고 있는데 실제로 한인, 브라질, 나이지리아 교회에 참여하는 백인들의 수가 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및 사진: 케이아메리칸포스트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배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413-1600 / laopendoor.org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7:45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8:30 (월-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 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1:45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7-3538 / www.laredeemer.com

주일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주일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1:45 심방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이영 담임목사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399-7949 / www.smmk.us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한기형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승만한 교회

2525 W 9th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김요섭, 이광, 문,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7-1700 /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배넛 전방)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입산부 메디칼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요 찬양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현연섭 담임목사

구인성장로교회
실천하는/전도하는/환신하는 신앙 공동체

4545 W.Washington Blvd. LA, CA 90016
T. (323) 428-7878 / F. (323) 932-0788 / kuhinoh@hanmail.net

1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 isaacd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영어예배: 주일오전 10: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성경공부: 주일오전 10:30 토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신현호 담임목사

새하늘 교회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신.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서고(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주일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박성도 담임목사

LA 선교교회
내 직업을 넘어서, 믿음으로 생애하고, 사랑으로 해-리하며, 소망으로 기뻐하자

35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35-0380, (213) 435-0094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밀종교회 / 토요일-17와버몬트 코너-100 Nav Fayette Park
주중새벽-LASF대안(월)6와 라파르트 코너-520 S. La Fayette Ave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목회하며, 새기대정착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버펄트교회 (1가와 버몬트 코너-152 N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 (213) 386-2233 / www.LASarang.com

교회혁신교회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성령침례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주일) 오전 11:30 새벽기도(토) 오전 06:00
교회학교(주일) 오전 11:30 토요일양육회 오전 06:00
문화교실(주일) 오후 01:30 성경연구(수) 오후 07:30

백재준 담임목사

행복한주님의교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군대, 주님의 신부입니다

7690 Archibald Ave. Rancho Cucamonga, CA 91730
T. (626) 710-0798 / todaud7@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일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김성철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4부예배 오후 12:5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양육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영어예배(EM)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안병권 담임목사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986-9797 / ganachurch.hompage.com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45 중, 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일양육회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일양육회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가디나선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21)365-9188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물통(通)하여 만사형통합니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양육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9400 / cornerstonetv.com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래우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ay-Youth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4부예배 오후 1:15(EM) 청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KM) 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육회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육회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스페인예배 오전 10:00 오후 6:30 (토)
한국어 오전 10시 (필로우쉽) 금요일양육회 오후 8:00
오후 12:00 (본당)

최호준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한국어 오전 10시 (필로우쉽)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8: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일성경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목요일성경예배 - 저녁 7:45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

신임회장 한병철, 부회장 정운영 목사 선출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 신규임원

2015년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를 이끌 신임회장단에 회장 한병철 목사(중앙장로교회), 부회장 정운영 목사(하은교회)가 선출됐다.

20일(목) 오전 11시, 중앙장로교회에서 열린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이하 교협)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지난 1년간 부회장으로 수고해 온 한병철 목사를 신임회장으로, 총무 등 다년간 교협을 위해 봉사해 온 정운영 목사를 신임부회장으로 선출한 뒤 박수로 격려했다.

한병철 목사는 “부족한 제게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를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아직 연륜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는 저를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리로 불러 주신 선배와 동료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 갈수록 척박해지는 이민사회 환경과 교민사회에서 교회가 받고 있는 파란을 눈송이를 생각할 때 교협협의회가 당면한 여러가지 사명은 매우 막중하다고 생각한다”고 서두를 땀 뒤, “이런 시대에 다시 한번 교회가 이민사회에 등불이 되고, 마음의 위안처가 되고, 삶의 피난처가 되고, 새로운 소망의 원동력이 되어 할 것이다. 큰 일을 할 자신은 없지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애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기총회는 1부 예배와 2부 회무처리로 진행됐으며, 한병철 목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를 제목으로 권면했다. 회무처리는 직전회장인 임연수 목사(생명나무침례교회)의 사회로 순조롭게 진행됐으며, 코람데오장로교회 백성봉 목사, 순복음예수사랑교회 김한나 목사가 모든 절차를 통과해 신임회원으로 가입됐다. 이후 임원선출이 진행됐으며, 교협협의회가 전달에 이어 신규임원교체가 이뤄졌다.

기타 안건에서 얼마 전 애틀랜타목사

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신운일 목사는 목사회에 대해 소개하면서 많은 동료 목회자들의 가입과 활동을 권면했으며 앞으로 교협과 협력해 상호발전해 가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한병철 목사와의 인터뷰.

-먼저 소감을 전한다면.

“감사하면서도 어깨가 무겁다. 애틀랜타에 온지 만 5년인데, 아직 경험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힘써 보겠다.”

-내년 계획을 간략히 소개해 달라.

“점점 교회들의 연합기능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협협의회 역할이 연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복음화대회나 부활절연합예배 등 큰 사업을 계속 이어가면서, 비공식적으로라도 돌루스, 마리에타, 애틀랜타 등으로 나눠 지역별 모임을 자주 갖고 교류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한다.”

-애틀랜타 한인 교회들에 부탁의 말씀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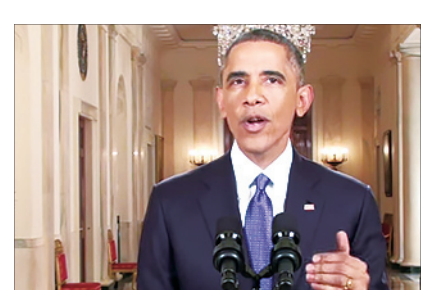
“이민사회 속 교회는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부정적 이미지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교협 차원에서 교회의 공신력을 세워가고자 노력할 것이다. 개 교회들은 교협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박현희 기자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한병철 목사

오바마-공화당 이민개혁 정면 대치



지난 20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날 오전 의회 연설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이민개혁안을 비판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왕이나 황제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화당의 베이너 의장은 “이민정책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반복적인 독단적 행동 때문에 함께 일(이민제도 개선)을 협력하며 나아가기 힘들다”고 포문을 열었다.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그가 주장하는 초당파적 이민개혁의 기회를 고의로 파괴하는 쪽을 선택했으며,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거부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 발표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둘러싸고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갈갈같은 대치현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1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델솔 고교에서 연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민개혁에 대한 대국민 호소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델솔 고교는 학생의 절반 이상이 히스패닉 계열로, 지난해 1월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구상을 밝힌 상징적 장소이기도 하다.

공화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도 준비 중이며 오바마케어 소송에 병합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특별 행정지침을 내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 예산관리국(OMB)과 국가경제회의의 등과 협의해 이민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백악관은 경제자문회의의 분석을 인용해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향후 10년에 걸쳐 경제성장률을 0.4~0.9% 증가시켜 국내총생산 규모가 2014년 900억 달러에서 2024년 2천1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

순헌정 기자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장 및 임실행위원, 이사장 이취임식

이재덕 신임회장의 '소통론' 으로 보는 뉴욕교협의 방향



뉴욕교협 제41회회가 시무예배와 함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재덕 신임회장 체제가 강조하는 소통의 리더십이 주목되고 있다.

“연례적인 행사 외에도 뉴욕교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41회 회장 및 임실행위원, 제29대 이사장 이취임식 및 시무예배가 18일 오전 10시 30분 프라미스코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개최, 뉴욕교협 제41회회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렸다.

제41회회 회장을 맡은 이재덕 목사는 이날 취임 인사말을 통해 이번 회기를 이끌어갈 정책을 ‘소통’이라는 한 마디에 모두 담았다. 단순히 연례적인 행사만을 개최하는 기관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교회와 목회자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교협이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말이 주목받았다.

뉴욕교협 제41회회는 이번 11월 말을 마지막으로 플러싱 유니온 스트리트에 위치한 회관을 떠나 리틀넥의 새 회관에 자리 잡게 된다.

리틀넥의 새로운 회관으로 이전하는 제41회회는 달라진 교협의 위상을 보여줘야 할 책임을 안고 시작하고 있다. 뉴욕교협의 아름다운 전통은 고수하면서도 시대의 흐름에 읽는 리더십으로 한인교회들의 위상을 높여야 할 사명이 있다.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은 최근 몇 년간 계속돼 왔던 교계의 양분현상 해결이다. 이재덕 신임회장이 밝힌 ‘소통’이라는 단어가 주목되는 이유다.

이재덕 목사는 “선배 목회자가 쌓아 주신 공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제41회회가 되도록 노

력하겠다”면서 “에베소서1:16-18 말씀을 힘입어 ‘성령이 이끄시는 화합과 소통의 교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교협 홈페이지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며,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단순한 소식만을 알리던 홈페이지를 소통의 장으로 적극 활용해 교회들의 단합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다. 뉴욕교협 제41회회가 소통과 섬김을 통해 교계의 연합과 일치 이끌어내게 되면 새로운 회관 이전과 함께 뉴욕교협의 위상을 높인 성공적인 회기로 기억될 것이다.

이재덕 회장은 정기총회가 열리기 전 기자들과 가진 후보 토론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했다. 교회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이냐는 질문에는 얼마나 뉴욕교협이 회원교회에 먼저 찾아갈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또 뉴욕에 갈등이 있는 교회들이 있다면 대화를 하고 포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덕 회장이 밝히고 있는 바, 뉴욕교협의 사명은 할렐루야대회 등 매년 치러오는 행사와 사업뿐만 아니라 교회들의 연합과 일치이며 이를 위해 뉴욕교협이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내겠다는 각오다. 형식적인 감사의 인사 대신 ‘소통’을 여러 차례 강조한 이재덕 목사와 회관 이전이라는 눈에 보이는 변화 앞에서 보여줄 제41회회 집행부의 행보가 주목된다.

김대원 기자

크리스천 여고생, 무신론 단체 상대로 맞고소

국기에 대한 맹세 중 ‘하나님 아래서’ 라는 표현 관련 공방

지난 19일 뉴저지의 법원에서는 한 무신론 단체에 의해 제기된 소송과 관련된 청문회가 열렸다.

앞서 지난 4월 미국인본주의협회(American Humanist Association)라는 무신론 단체는 “공립학교에서 ‘하나님 아래(under God)’라는 문구가 들어간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한다”며 “이 문구를 삭제해 달라”는 소송을, 뉴저지 고등법원에 맨해튼 애버딘 교육청과 교육감 데이빗 M. 힐리(David M. Healy)를 상대로 제기했다.

그러자 이에 대해 블랙우드에 소재한 하일랜드고등학교 3학년인 사만다 존스는 맞고소를 했다.



사만다 존스

이날 먼머스(Monmouth) 카운티 고등법원의 데이비드 바우만(David Bauman) 판사는 베킷트종교자유재단(Becket Fund for Religious Liberty)이 뉴저지의 고교생인 사만다 존스(Samantha Jones)의 이름으로 반대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청문회를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미국인본주의협회의 법적 책임자인 데이비드 니오스(David Niose)는 “공립학교는 학생들에게 ‘애국심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연관돼 있다’고 알려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러한 매일의 활동은 무신론자와 인본주의자 자녀들을 2등 시민으로 묘사하며, 무엇보다도 명백한 반무신론적인 선입관을 심어 준다”고 했다.

사만다 존스는 “나는 유치원 때부터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왔다. 나에게 ‘하나님 아래서’라는 문장은, 한 국가의 역사를 이끌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내게는 어떤 일이 일어

난다고 해도 정부가 빼앗을 수 없는 권리가 있다. 어떤 학생이라도, 단지 일부 사람들이 미국인들의 영원한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1954년 국기에 대한 맹세에 삽입된 ‘하나님 아래서’라는 문구는, 이것이 비헌법적이라고 보는 일부 무신론 단체들의 공격 대상이 돼 왔다.

앞서 베킷트재단의 법률자문위원인 다이애나 베름(Diana Verm)은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판사는 이번 소송의 초점을 잘 이해하고 잘 준비되어 있었다. 또한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익숙했다”면서 “재판부가 양측에 어려운 질문들을 던졌으며, 앞으로의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모든 다른 법정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유지하기로 하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기대를 한다”고 전했다.

강해진 기자

O.C./앨버틴 지역

오병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한여래(창세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금요찬양 오후 7:30
경애인예배 오전 11:00
영아장년부 오전 9:00, 11: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뻑이는 교회

1200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s.org

박일룡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영어예배(GLMC) 주일 오후 12:30
수요기도회 주일 저녁 7:30
수요기도회 주일 저녁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로템장로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 (714) 956-7640 / (714) 956-5845 / WWW.ROTHEM.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6:30
토 새벽 6:20

고현중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수요기도회 저녁 8:00 분당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허규암 담임목사

놀익연합감리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l.com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전 8시, 오전 10시
화요일 오후 7시(계시목)
금요일 오후 7시(계시목, 7교회)

남상국 담임목사

오픈바이블교회
OPEN BIBLE CHURCH

800 S.Harbor Blvd. #220, Anaheim, CA 92805(Harbor + South)
T. (949)285-0619 / E. obchurch7@gmail.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실천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www.socalsamsungchurch.org

주일예배 장년1부 9:00am EM 1:30pm
장년2부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Youth 예배 12:15pm 토 6:00am
Children 11:00am

정철 담임목사

새생명한인교회

15 Goddard, Irvine CA 92618
T.(949)341-0022 / (949)398-7303
www.newlifekpc.org

김민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5
EM영어예배 오후 12:45
금요강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교리 사무실)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 9:15
고등부 오전 11:30
한여래 오전 11:30
KM대학장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임목사

앨버틴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최상준 담임목사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장년부 오후 1:30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엘버틴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주일 삼강이 예배: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회: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이영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11:45 AM Adult Service
1:30 PM English Service
금요일: 7:20 PM(성경 66권특별성경공부)

새벽예배: 5:30 AM (화-금)
6:30 AM (토)

이승필 담임목사

새로운 교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종하고 기쁨으로 온전하신 분이 되시길 원합니다(골 3:10)

12432 9th St. Garden Grove, CA 92844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us@gmail.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한여래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주일예배 오후 1:00(분당)
E.M.예배 오후 1:00 (pre-school)
주일성경공부 오후 3:00
목요성령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스라엘 세미나: 매달 첫째주 (토) 오전 10:00

최국현 담임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이스라엘 말리아 선교회-성지순례, 정탐전문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 (714)351-0124(Cell), (562)475-4323(Church)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필일 오전 06: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무마리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찬양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목사예배 오후 2:30
월요 선교학교 오후 7:30
월요 중보예배 오후 7:30

수요 예배 오후 7: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금요침아예배 오후 8:00
토요 E.M.예배 오후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5-6402,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3부: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670-6700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입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이블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미국 산삼 공인딜러
Permit Number 90-293202
200명의 미국, 인디언 심마니 협력 업체

100% 미국 야생 산삼

HQ
山
蔘

가을 햇산삼이 나왔어요

근 뿌리 근 뿌리
정성스럽게 캐습니다!

미국 야생 산삼
1 파운드 = \$800~\$1,300
+ 특별 선물 무료 증정
HQ구연산과 HQ천연미네랄 회색소금(\$200-\$300상당)



산삼의 2차 가격파괴,
산삼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정착시킨 정직한 업체입니다.
산삼의 품질은 최고로 가격은 최저로 해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강력한 면역력 · 자연치유력

타 업소보다 2-3배 싼 가격

NY, WI, VA, NC주 최상급 북부 최상급 효능 햇산삼이 매주 두번씩 들어옵니다.
주정부 발행 진품 인증서 첨부된 100% 살아있는 야생 산삼입니다.
채취시 흙이 묻어있는 그대로 들여와 한 달 내에 전량 판매됩니다.
인삼, 홍삼이 안맞는 분들도 미국 산삼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산삼복용법은 씹어서나 달여서 드시도록 상세 소책자를 드립니다.

산삼의 25가지 효능

임상실험 30년 노하우를 전수받아 건강상태에 따라 각각 상담해 드립니다

- | | |
|--------------------------------|---------------------------------|
| 1.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 | 14. 루머티즘, 만성관절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 |
| 2. 당뇨에 효과가 탁월함을 임상실험으로 입증되었음 | 15. 만성피로나 하체무력감에 매우 뛰어난 약성효과 |
| 3. 심장을 강하게 하며 심매계의 악리작용을 강화한다 | 16. 체내 독기 제거로 피부를 깨끗하며 종기를 식혀줌 |
| 4. 위장병 원인이 되는 위산과 펩신의 분비물을 억제함 | 17. 노화물질의 축적을 억제해 노화방지효능이 크다 |
| 5. 미국 산삼은 고혈압, 저혈압의 증세를 정상화 시킴 | 18. 생명력, 저항력이 증가해 알콜중독과 숙취에 탁월 |
| 6. 알레르기성 체질을 개선시킨다(비염치료 포함) | 19. 부인병(냉증, 월경과다, 자궁출혈)에 탁월한 효능 |
| 7. 정력을 증강시키며 남녀 불임환자에게 효과가 좋다 | 20. 폐기능 등 호흡기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함 |
| 8. 각종 간질(간염, 간경변, 간암 등)회복에 탁월함 | 21. 신경과민, 신경쇠약과 불면증에 효능이 있다 |
| 9. 성인병 예방은 물론 갱년기 장애 해소에 탁월함 | 22. 모든 질병의 빠른 회복과 원기를 보하고 돌아준다 |
| 10. 두뇌 신경세포를 촉진시켜서 머리가 총명해진다 | 23. 추위를 타지 않으며 손과 발이 따뜻해진다 |
| 11.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며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능 | 24. 면역력을 극대화시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탁월함 |
| 12. 망막혈관을 세동맥을 선명하게 해 눈을 맑게 한다 | 25. 성인병 예방은 물론 갱년기 장애 해소에 탁월함 |
| 13.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스트레스를 없애준다 | |

건강상담 및 문의: Dr. 최



전속모델 탤런트 박영지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

HQ헬스 / HQ산삼 / HQ 바이오텍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월-금: 10am-7pm, 토:10am-5pm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세리토스 직영점



LA 본점

DCMi 선교회 아프리카 르완다 전도대회 7천명 결신자와 함께 성황리에 마쳐

대규모 복음전도대회와 목회자 세미나 동시에 열려



DCMi 선교회가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복음전도대회를 열어 7천명의 결신자를 얻었다.

DCMi(David Chung Ministries International, 대표 정태희 목사) 선교회가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대규모 복음전도대회와 목회자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치고 돌아왔다.

DCMi 선교회의 이번 전도 대회는 우기의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회장을 가득 메웠다. 르완다 현지 주최측은 이번 대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인원을 7천명 가량으로 추산하며 이들이 지역 교회로 인도되고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다.

정태희 목사는 “이번 전도대회는 르완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히 나누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르완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지고 더욱 복음이 확장되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4년 간 매년 세 차례 씩 르완다를 방문해 지역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십 개발 사역을 추진해 온 DCMi 선교회는, 마지막 사흘간의 컨퍼런스를 마치고 목회자들에게 과정 수료증을 전달했다.

르완다 목회자들은 “4년 간의 컨퍼런스를 통해 신학적, 목회적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확신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며 “르완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뒤덮이길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DCMi 선교회는 전도대회와 목회자 세미나를 비롯해 어린이 사역과 의료 사역도 병행했다.

어린이 전도대회 첫날부터 3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해 말씀과 찬양, 각종 게임과 운동 경기 등으로 교회와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또한 대회장 옆에 마련된 진료소에서는 열악한 르완다 의료를 보여주듯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의료진들을 환영했다.

DCMi 선교회는 앞으로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바탕으로 현지인에 의한 복음 전파를 위한 세미나와 복음 전도 대회를 통해 말려진 사명을 감당할 계획이다.

김 브라이언 기자

선교와 지상명령 완수하려면 다음 세대와 연합이 관건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일부 교회에만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반드시 화해하고 연합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상명령을 완수하기 위한 전 세계 8천여 기독교 지도자의 선교운동인 콜투올(Call2All)이 2016년 여름 한국에서 ‘2016 콜투올 전략대회’(2016 Call2All Congress)를 개최한다. 콜투올 전략대회는 2008년 1월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6백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가 모여 선교전략을 논의한 이후 전 세계에서 24차례 개최됐으며, 한국에서는 처음이다. 2016 콜투올 전략대회에는 1천여 명의 국제 기독교 지도자와 4천여 명의 한국 교계, 선교계 지도자 및 차세대 리더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준비하기 위한 ‘2014 콜투올 3차 예비모임’이 지난 3월, 7월에 이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일산광림교회(박동찬 목사)에서 열렸다. 한국 교회, 선교단체 지도자, 차세대 리더 등 170여 명이 참여한 예비모임의 주제는 ‘선교의 미래와 다음 세대’, 부제는 ‘한반도의 미래와 아시아 선교 엔진’이었다. 예비모임은 2016년 본 대회까지 9차례 이상 진행될 계획이다.

콜투올 대표이자 GPN(Global Pastors Network) 대표인 마크 앤더슨(Mark Anderson) 목사는 3차 예비모임 첫날 콜투올 운동을 소개하고, 지상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세대 간의 연합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요한복음 17장 1절, 4절’ 말씀이 콜투올 운동을 시작한 이유라고 밝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야 한다”며 “지금 지상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일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만일 소수 무리가, 혹은 한 교회가 전 세계 가운데 이뤄야 할 지상명령을 본다면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며 “전 세계에는 74억 인구와 7천여 언어가 있고,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읽거나 쓸 수 없는 문맹이며, 문이 닫힌 나라에 사는 20억 인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앤더슨 목사는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수 없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다”며 “예수님이 지상명령 완수를 위해 우선 하나님 아버지께 사 람들이 수평적, 수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요 17:21), 우리 안에도 세대 간에 하나

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옛 소련 땅에서 들끓던 귀신들이 다시 한 번 러시아 땅에서 득세하고, 동시에 과격주의 이슬람 세력들이 일어나 기독교인과 유대인과 맞서게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의 강력한 영향을 받은 젊은 세대가 지상명령을 완수할 것을 원수가 알고 이 세대를 없애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젊은 세대가 지상명령을 완수할 유일한 방법은 종교적으로 미지근한 모습이 아니라, 보좌에 앉은 주님을 갈망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앤더슨 목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경험하고, 전쟁을 할 줄 아는 앞선 세대가 젊은 세대를 위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들의 경험을 전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선 세대는 자신들의 성취를 세상에 나타내고 존경 받고 있지만, 심지어 앙로원 같은 곳에 앉아 모든 경험을 쌓아놓고 있다”며 “지상명령 완수를 위한 영적 전투에 새로 참여한 젊은 세대는 앞선 세대의 언어로 쓰인 전쟁 전략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앤더슨 목사는 세대 간 연합을 위해 먼저 이전 세대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여, 신약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은 종교의 모습과 행위에는 집착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이라며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특히 젊은 세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종교의 모습만 가진 교회에 흥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교회를 떠나는 젊은 세대를 위해 예배 형식도 바뀌고, 흥미를 주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러한 방법으로는 그들을 붙들 수 없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그들을 변화시킬 때, 더 이상 종교가 지루한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앤더슨 목사는 이날 “한국교회는 특별히 지상명령 완수를 위해 택함을 받았다”며 “모든 나라가 다 특별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문을 새롭게 열어 선교운동의 급성장을 이룰 뿐 아니라 한국 안에서 새로운 전도의 물결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위해서도 세대 간 연합은 필수라고도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추수감사절 바자회 수익 1만9천 달러, 에티오피아로



새소망교회가 추수감사절 바자회 수익 1만9천 달러를 기아대책 한인본부 통해 에티오피아에 후원했다.

메릴랜드에 소재한 새소망교회(담임목사 안인권)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의미있는 행사를 했다. 이 교회는 아프리카의 최빈국 중에 하나인 에티오피아의 한 마을이 극심

한 가뭄 속에 화재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들을 돕기 위해 총여선교회가 동원되어 바자회를 했다.

바자회 실무를 맡은 총여선교회

장은 “예년보다 일찍 다친 겨울 바람으로 인해 바자회를 진행한 두 주간은 야외바자회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구촌의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가운 바람도 기운을 잃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안인권 목사는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주신 것, 즉 받은 것에 감사한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더, 즉 나눌 수 있어서 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바자회의 수익금은 국제기아대책 한인본부(KAFHI)를 통해 구호복구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사무국장 정승호 목사
703-473-4696, shchung@fh.org
www.kafhi.org

김 브라이언 기자

공 고

음악 저작권 침해는 불법입니다!

미국 및 캐나다 지역의 한국음악 및 교회음악 (CCM)저작권 사용에 따른 징수 권리를 가진 퍼블리싱 컴패니 (주)엘로힘 이피에프 USA는 2014년 10월 15일을 기준으로 미국 및 캐나다 지역의 한국 음악 및 교회음악을 사용하는 모든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진 등록을 공고합니다.

1. 교회에서 찬양을 사용할 시 이제는 저작료를 내셔야 합니다. 안 내면 불법입니다.
2. 교회에서 사용 되는 복음성가곡은 저희 Elohim EPF USA에 내시면 됩니다.
3. 저작료에 대한 것은 웹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Elohim EPF USA는 자진 등록 기간에 등록된 교회에 한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 공고 내용 —

등록 대상: 한국음악 및 교회음악(CCM)을 사용 하는 모든 교회
 등록 기간: 2014.12.31
 등록 방법: 웹사이트 등록
<https://elohimepfusa.com>
 Tel. (213)736-0073
 문의처: 문의 사항은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접수합니다.

Independent Music Publishing and Licensing Company

Tel. (213)736-0073

<https://elohimepfusa.com>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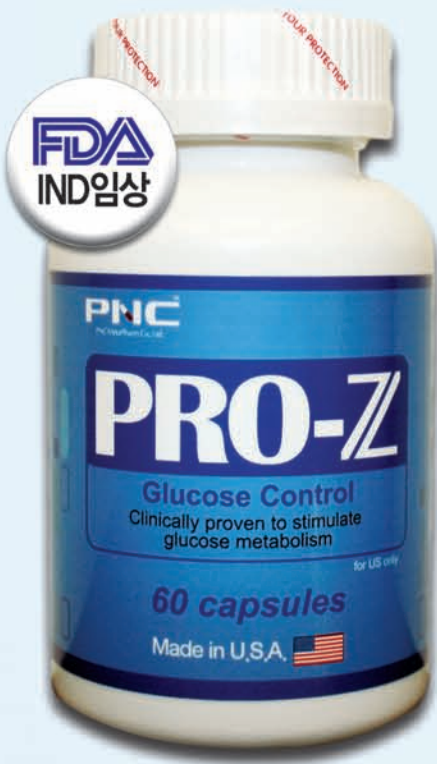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Special Price

✓ 한국 30만명 판매 ✓ 미국 출시 기념 SALE

1병 \$76 + tax 3병 \$200 + tax 6병 \$372 + tax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에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아반디아와 액토스는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족, 신장부족, 간독성)과 광광암 등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아반디아는 2010년 말에 판매가 중지되었고, 액토스는 2011년 상반기에 프랑스와 독일 유럽 전역으로 판매금지가 확산 됐습니다. 중앙일보 2014년 5월 15일 경제 3면에서 액토스를 복용한 한인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기존의 당뇨약은 혈당은 낮출 수 있으나 각종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 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병원 2곳에서는 당뇨치료 보조제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sensitivity)에 깊게 관련된 사실을 주목하여 Zinc Metabolism을 활용한 신 합성물질 프로지를 개발하였습니다.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프로지를 아침, 저녁 하루 2알을 6달 정도 복용 후에 차츰 당수치가 내려가 지금은 정상인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졌. 몸이 부어 걷기 불편했는데 부기가 가라앉아 지금은 걷는데 지장이 없어졌습니다
- 김OO 장로 (당뇨 10년)

프로지를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 3알을 4개월간 복용하니 차츰 당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내려가던 당이 7개월째는 정상인 수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혈당 조절을 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가려서 먹다 보니 뼈밖에 안 남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음식을 이것저것 잘 먹으니 몸에 살이 붓고 건강해졌습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알만 먹습니다.
- 최OO 목사 (당뇨 30년)

전립선이 심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서 있고 앉아 있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프로지를 하루 3알 4달간 복용하고 나서 고통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타민처럼 하루에 2알씩 꼬박꼬박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 이OO 집사 (전립선)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g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 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이며, 현재 마지막 3차 임상시험 진행이후 상용화 단계인 신약개발과정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g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 엘바인점 : 714-818-2014
5331 University Dr. #C Irvine, CA 92612
- 오렌지카운티점 : 562-405-0332
- LA 실로암 한의원 : 213-427-0036
2621 W. Olympic Bl. #202 LA, CA 90006
- LA 비디오 마트 : 213-381-2647
363 S. Western Ave. LA, CA 90020
- Mother's Care Pharmacy : 213-739-3030
6th Zion Market
- Vermont Galleria Pharmacy : 213-388-4100
벌몬 갤러리아몰
- Virgil Pharmacy : 213-384-1200
그랜드스파 건물내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미국 공식 판매처

박명수 교수의 한국교회의 연합운동과 복음주의 (1)

한국교회 부흥, 연합기구 아닌 한경직 중심 복음주의 운동

한기총 이영훈 목사의 제20대 대표회장 취임과 한복합의 '교단장협의회' 재발족 움직임으로 한국교회 연합운동에 변화의 조짐이 싹트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본지는 2014년 3월 20일, 한기총에서 주최한 한국교회연합운동 토론회에서 박명수 교수(서울신대)가 발표한 '복음주의적 연합운동 방안' 원고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기초: 복음주의
최근 한국교회 연합운동은 근본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의 연합운동은 진보주의로 대표되는 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보수·복음주의를 대표하는 한기총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NCC는 계속 진보적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보수·복음주의는 사분오열하고 있다. 한기총에서 한교연이 나왔고, 최근 다시 보수적 교단의 연합체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보수·복음주의 교회의 본격적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파는 부패로 망하고 좌파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현재 한국 보수·복음주의는 부패와 분열을 다 갖고 멸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필자는 한국교회가 복음주의에 기초해서 연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한국교회 대다수가 복음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 대부분은 급진적 진보주의도, 극단적 보수주의도 아닌 '온건한 복음주의'이다. 여기서 복음주의란 성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체형적 신앙을 강조하며, 선교를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는 신앙의 형태를 말한다.

우선 필자는 한국교회가 진보주의로 통합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진보주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 의심을 갖고 있으며, 구원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고, 교회를 사회변혁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이는 한국교회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하지만 필자는 이런 단체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교회 일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지,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교회는 보수주의로도 연합되기 힘들다. 한국교회 보수주의를 대변하는 것은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칼빈 보수주의'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교리를 절대적이라 생각한다. 이들은 칼빈주의와 기독교를 동일시한다. 칼빈주의가 기독교의 여러 형태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보다, 칼빈주의야말로 모든 기독교를 판단하는 잣대라고 생각한다. 이런 자세는 한국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없다.

필자는 한국교회는 복음주의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한국 기독교 복음주의는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보수주의부터 진보주의까지 '복음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에는 복음주의라는 이름 아래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들이 다 같이 참여하고 있고, 한국복음주의신학회에는 장로교 통합 측부터 고신 측까지 참여하고 있다. 사실 복음주의라는 용어는 루터주의, 칼빈주의, 웨슬리안, 오순절 운동 등을 다 포함한다. 원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복음주의는 진보주의와 싸우기 위해 보수주의자와 연대해 활동해 왔다. 따라서 복



박명수 교수
서울신대

음주의 안에는 보수주의가 내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전제를 갖고, 한국교회의 연합운동에 대해서 말하려 한다. 우선 복음주의 관점에서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역사를 설명하고, 이어 복음주의 연합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언급하려고 한다.

한국교회 복음주의 연합운동의 역사

우선 한국교회는 복음주의자들의 선교로 시작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한국에 들어온 대부분의 초기 선교사들은 자유주의자들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교리만 강조하는 정통주의자들도 아니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로 대표되는 초기 선교사들은 체형적 신앙을 강조하는 복음주의자들이었다.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일이,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모인 가운데 1905년 재한복음주의선교사연합공의회가 설립된 것이다. 이들은 칼빈주의든 알미니안주의든 간에 하나의 예수교회를 만들려 했다. 이는 한국교회의 뿌리가 복음주의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이 단체는 당시 일고 있던 부흥의 열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들은 전국적인 부흥회를 열기로 했고, 이 결의

에 의해 한국교회는 부흥운동에 열심히 참여했다. 사실 복음주의 연합운동의 기초는 복음을 전해 참된 신자를 만드는 데 있었다. 그 후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가 되어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모체가 되었고, 여기에 1930년대 중반부터는 성결교회와 구세군도 가담하여 보다 넓은 의미의 연합기관이 되었다.

일제시대 한국교회가 부딪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공산주의였다. 1920년대 중반부터 공산주의는 한국에 들어와 한국 기독교를 공격했다. 이들은 기독교가 현실 사회를 무시하는 아편과 같은 종교라 비판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했다. 여기에 대해 1932년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는 한편으로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공산주의의 계급투쟁, 유물사상, 폭력적 혁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를 통해 한국기독교는 반공의 입장에서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해방 이후 한국교회는 일제시대 연합운동의 전통을 계승한 한국기독교연합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건국과 교회의 재건에 힘썼다. 당시 한국사회는 좌우 이념대립이 심했고, 여기서 한국기독교협의회는 박헌영의 조선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상해 임시정부를 지지하며 이승만, 김구 같은 우익 지도자들과 힘을 합쳤다. 당시 한국 기독교는 우익지도자들과 함께 신탁통치를 반대하고,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지지했다. 이 모임을 중심으로 6·25 때 공산주의의 침략에 맞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연합회가 1948년 설립된 WCC와 연결되면서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한국에

나와 있던 주류 교단 선교사들은 본국 정부의 지시에 의해 한국교회를 WCC에 가입시키려 했고, NCC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갔다. 당시 WCC는 소련이 제3세계 기독교와 함께 서방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통로로 삼고 있었고, 신학적으로 영혼구원보다는 사회정의 실현에 강조점을 두고 있었다. 이것은 당시 한국교회의 주류인 복음주의와 거리가 먼 것이다.

이런 한국교회에 들어온 것이 NAE와 ICCCC였다. NAE는 온건한 복음주의 입장에서, ICCCC는 극단적 근본주의 입장에서 WCC의 흐름에 저항했다. 하지만 온건한 입장을 가진 NAE는 자신들이 한국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는 것을 보고 한국에서 철수해 버렸고, 그 결과 한국교회는 진보적인 NCC와 근본주의적인 ICCCC가 남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를 이끌어 간 분이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한 온건한 복음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1960년대에는 민족복음화운동, 1970년대에는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와 엑스플로 74 등을 중심으로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당시 한국교회 대표는 NCC도 ICCCC도 아닌,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온건한 복음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의 특징은 분명한 반공의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온건한 복음주의란 점이다. 이들은 교리적 차이보다는 연합의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교회가 가장 큰 부흥을 경험한 것은 어떤 연합기구도 아닌,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복음주의 운동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계속)

덮개가 열린 맨홀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홀에 빠져서 크게 다쳤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그 일대에서 22개의 맨홀 덮개를 훔쳐갔다. 비록 1.5미터 깊이에 빠져지만 순간적인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길을 걷다보면 여기저기서 맨홀을 만나게 된다. 보통 때는 의식하지 않고 그 맨홀 위를 밟고 지나간다. 깜깜한 밤중에도 우리는 튼튼한 덮개가 덮혀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걸어가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속에 있는 맨홀을 덮어두고 살아간다. 그런데 살다보면 이 사건처럼

그 덮개가 열릴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맨홀 아래로 추락한다.

가장 자주 덮개가 열리는 것이 분노의 맨홀이다. 평소에는 다정다감하던 사람이 사소한 일에 갑자기 분노를 내며 이성을 잃을 때가 있다. 그 사람 속에 감추어져 있던 상처를 누군가 건드렸기 때문이다. 절망의 맨홀도 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저 그런 일이지만 본인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다. 유혹의 맨홀도 있다. 훗날에는 발등을 찌고 후회하지만, 유혹을 받을 때에는 그

달콤함 때문에 맨홀의 덮개가 열린 것도 모르고 그 속에 빠져들어간다. 유혹의 결과는 처참하다. 탐욕의 맨홀도 있다. 성경은 있는 것으로 자족한 줄 알라고 했다. 그러나 사람들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은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욕심이 과한 사람은 행복하기가 어렵다. 욕심의 노예가 된 사람은 죽는 날까지 그 노예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인생은 마치 어둔 밤길에 골목을 걸어가는 것 같다. 거기 있어야 할 맨홀 덮개가 옮겨졌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만일 골목의 맨홀이 열렸다면 "위험(Danger)"이라는 뜻말이라도 세워둘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맨홀에는 그 뜻말을 세워줄 사람도 없다.

이런 위험에서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비결이 감사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지면을 걷지 않고 공중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맨홀에 빠질 염려가 없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중력을 벗어난 삶을 살게 한다.

지난 10월 11일 밤 9시에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다. 동네 골목길을 걸어가던 한 사람이 덮개가 열린 맨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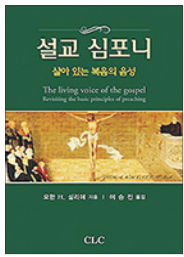


신간추천

설교 심포니

요한 H. 실리에 | CLC | 46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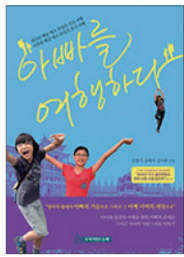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성경 본문의 음성, 회중의 음성, 그리고 설교자의 음성이라는 네 가지 역동성의 통합을 추구함으로써, 살아있는 복음의 음성을 생생하게 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설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런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다. 설교를 더 잘 준비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책.



아빠를 여행하다

김형기 외 | 우리가만드는책 | 304쪽

‘아이와 둘만의 여행을 통한 아빠의 존재감, 그리고 자녀의 사랑스러움을 익히는 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4년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당선작이다. 아빠는 딸과 인도에서 38일간, 아들과 중국에서 38일간 각각 배낭여행을 하면서 있었던 일과 생각을 담았다. 인도와 중국 여행 경로와 교통편을 지도로 상세히 안내하고, 여행 경로에 따라 비용 내역과 날씨도 기록했다.



소크라테스와 유대인

미리엄 레너드 | 생각과사람들 | 392쪽

서양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서로 대립과 갈등을 번갈아 하면서 서양 문화를 이루는 근간이 됐다. 각기 발생의 기원과 배경이 다른 이 두 사상 간의 갈등과 대립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구화되는 현 시대에 그들의 사상적 기반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철학적 시각에서 두 사상의 배경부터 외형적 모습까지 심도 있게 분석한다.



주는 나의 피난처

코리 텐 불 | 생명의말씀사 | 336쪽

네덜란드의 평범한 가정의 네 자녀가, 나치의 핍박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일에 주동자가 됐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과 비참한 수용소 생활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했다. 전쟁 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바쳤다. 고전이 된 책을 이번에 현대적 언어와 감각으로 재탄생시켰다.



REVIEW

‘영적 경험으로 검증’ 되고 ‘삶에서 실증’ 된 하나님의 법칙들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노먼 빈센트 필(Norman Vincent Peale) 목사의 〈인생항로(예찬사)〉와 〈긍정적 사고방식(세종서적)〉이 잇따라 발간됐다.

〈인생항로〉에서 필은 인생길의 여러 고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나고 극복할 것을 북돋우고 있다. 잡지 ‘가이드포스트’를 창간했으며 ‘만인의 성직자’로 불릴 정도로 상담 요청이 쇄도했던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접했기 때문에, 책에는 ‘예화’가 아닌 ‘실화’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문제를 말씀과 실천을 통해 해결받았다. “기독교는 불가사의한 것이 아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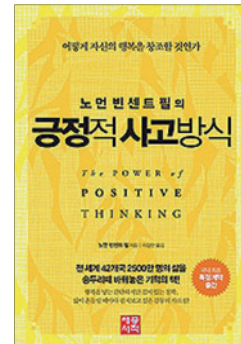


인생항로
노먼 빈센트 필 | 예찬사 | 255쪽

니다. 기독교의 메커니즘은 하나님의 법칙에 의거하며 체계적입니다. ... 저는 신약이야말로 ‘하나님의 과

학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신약의 과학적 법칙,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행한다면, 원리와 규칙을 배우고 행한다면 그 법칙에 따른 확실하고도 분명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에서 필 목사는 ‘어떤 일에도 좌절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와 건강, 그리고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삶의 활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실례들을 제시함으로써 그런 인생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자에 따르면 이는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고 확실하게 입증됐다. 일반 자기계발서이지만, ‘긍정적



긍정적 사고방식
노먼 빈센트 필 | 세종서적 | 400쪽

사고방식’의 근저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는 “당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다. “이 책에 요약

한 원리들과 방법들은 모두 영적 경험이라는 실험실에서 검증되고, 삶의 현장에서 실증된 것들이다.

노먼 빈센트 필(1898-1993) 목사는 ‘20세기를 움직인 기독교 책 100권’에 선정된 〈적극적 사고방식(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의 저자로, 1937년 ‘종교치료 클리닉’을 설립했고 1945년 ‘가이드포스트’를 창간했다.

또한 저명한 저술가이자 세계적인 동기부여 연설가이다. 52년간 뉴욕 마블 협동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지냈으며, 라디오와 TV 정기설교로 알려졌다.

이대웅 기자

추나
수술 없이
척추 치료

장수한의원



- 척추 교정
- 골반 교정
- 자세 교정
- 근육 교정

한방 특진안내 >> 침, 뜸, 부항, 추나

두통, 목, 오십견, 요통, 관절염, 좌골신경, 신경통, 중풍, 위장병, 간장병, 심장병, 신경쇠약, 신경통, 고혈압, 부인병, 갱년기 장애, 어린이 보약, 산전산후 보약

각종 보험 환경 직장상해보험
교통사고 및 스포츠사고 전문
HMO (이지초이스)
통증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

- 디스크 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팔이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며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든 분
- 잠을 자고 난 후 갑자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한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뼈뺀척추
- 엉치 및 다리가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여 허리가 아프신 분
-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뚫!

- 통증 클리닉 : 중풍마비, 관절염, 두통, 신경통, 요통, 디스크, 허리, 목
성 클리닉 : (남성)전립선, 발기부전, 조루, 정력저하, (여성)불감증
한방 내과 : 감기, 천식, 고혈압, 당뇨, 위장병, 갑상선 질환, 변비, 알러지, 피부병, 비염
한방 부인과 : 불임증, 갱년기 장애, 월경불순, 산전 산후 보약
한방 정신과 : 치매 및 예방, 우울증, 불면증, 각종 스트레스 질병
한방 소아과 : 허약체질, 소아경기, 성장장애 및 보약 기타 : 비만치료
- 이런분께
▶ 이곳 저곳을 다녀 봤지만 효과 못본 분
▶ 지긋지긋한 고질병을 없애고 싶은 분
▶ 본인은 고통스럽고 불편하나 병원을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213)381-7575 / Cell:(213)219-2739

장소를 이전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1144 s western ave #104
Los Angeles ca 90006

월-금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2시 (예약 하신분에 한해서 밤 10시까지 진료)

‘교과서’ 이자 ‘열쇠’ 로 가장 사랑받는 책, 로마서

주석·강해 계속 발간 ... 하나님의 의에 대한 관점 비교

위기를 맞이한 한국교회에서 ‘바른 신앙의 회복’, ‘백 투 더 바이블 (Back to the Bible)’ 등이 강조되면서, ‘복음의 정수(精髓)’가 담긴 로마서 주석 및 관련 도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로마서는 ‘복음의 교과서이자 성경 본문 전체를 여는 열쇠’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책 중 하나이며, 기독교 구원론과 성경 신학의 핵심이 담겨 있다.

특히 로마서는 어거스틴을 비롯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변화시켰으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을 모두 촉발시켰다. 특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1장 16-17절은 기독교 태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처럼 가톨릭에 맞섰던 ‘프로테스탄트’를 태동시킨 책이 로마서이다.

인간에게 이해되도록 드러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구원의 능력으로 밝혀 드러났다는 말이라고 해석한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칭의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하나님 앞에서 효과가 있는 의다. 이는 인간의 불의나 인간의 의와도 대조되는 것으로, 칭의의 효과와 완전함과 확고함을 요약해 준다.

존 머리는 이처럼 각 장에서 주제들을 제시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있다.

질문들은 1세기 유대인들의 마음을 차지하지 않았다”며 “예수와 그의 첫 제자들에게 분명했던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은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영광스러운 구원을 진정으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예수 안에서 완성하셨으며, 이 성취를 복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 적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주제인 ‘하나님의 의(1:16-17)’를 유대교적 입장에서, 바울이 던진 기독교의 질문으로써, 로마서의 주제로서 각각 풀어내고 있다.

특히 1장 17절의 주제 진술을 “단순히 ‘칭의’에 관한 이야기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과 정의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한다면, 하나의 전제로서 로마서를 관통하는 사교의 흐름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로써 9-11장이 ‘주요한 절점으로 의도한 부분’임이 부각되며, 이는 존 머리와는 다른 방향이다.

프란시스 웨퍼 복음의 진수
The Finished Work of Christ
프란시스 웨퍼 | 생명의말씀사 | 344쪽



개정판이 나온, 프란시스 웨퍼 박사의 <복음의 진수(원제: 프란시스 웨퍼의 로마서 강해)>는 ‘로마서 1-8장에 나타난 복음의 이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웨퍼 박사는 프랑스의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가르침으로 로마 가톨릭 교리에 맞섰던 12세기 성당 건물 인근에서 밤마다 학생들에게 로마서를 가르쳤고, 당대는 물론 바울 당시에 지성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로마서를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자아냈다고 한다.

초창기 연구활동 산물인 이 책에서, 웨퍼는 서론과 주제(1:1-17), 칭의(1:18-4:25), 성화(5:1-8:17), 영화(8:18-39)로 나뉜 한 구절씩 해설하는 형식을 취한다. 웨퍼는 책 전체 내용인 1-8장에 대해 “1장 16-17절 말씀에 대한 해설”이라고



올해 나온 로마서 주석·강해서들

할 정도로 이 두 구절을 중요시했다.

저자는 “오늘날 지성적인 세상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고,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며 “아울러 지성적인 면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도 부끄러워선 안 되는데, 복음은 시간이 흐르면 변하는 인간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17절의 ‘믿음’에 대해선 “믿음의 의미는 이신칭의를 넘어선다”며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도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하는데, 이는 구원의 두 번째 측면인 성도의 성화를 말한다”고 했다.

로마서 주석
The Power of God
조나단 에드워즈 | 복있는사람 | 568쪽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로마서 주석>은 그가 성경의 여백에 적은 글들과 작품 전집에 나오는 로

마서 관련 내용 전부를 모아 묶어낸 책이다.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교의 존 거스너가 시작한 작업을 같은 학교의 데이비드 로비와 벤저민 웨스터호프 교수가 완성했고, 에드워드 전문가인 더글러스 스워니 교수가 감수했다. 끝에는 에드워즈가 로마서를 본문으로 했던 설교 개요가 실려 있다. 직접 쓴 글이 아닌 데도 한 절마다 주석이 상세하게 달려 있다.

1장 16-17절과 관련해 저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의미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제공하신 도덕적·법적 의를 의미한다”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갖고 있으며 또 그들을 의롭게 만들거나 정당하게 만드는 의는 바울 사도가 인용하는 구약 본문(합2:4)으로 증명되고, 다음으로 여기에 18절의 ‘그들의 불의’처럼 정반대 사실이 대조되고 있다”고 소개한다.

또 “평범한 믿음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잘못된 교리나, 이 두 믿음은 종교 교리에 대한 단순한 지성적 동의에 있다는 잘못된 교리들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특별히 구원의 조건으로 성경에서 충분히 강조되고,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다.

이대웅 기자

존 머리 로마서 주석
The Epistle to the Romans
존 머리 | 아바서원 | 772쪽

로마서
Romans: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ume X
톰 라이트 | 에클레시아북스 | 660쪽



톰 라이트 교수의 <로마서>는 대표적인 ‘새 관점’ 학자의 주해이기 때문에 관심을 끈다. 기대대로 톰 라이트는 1장 3-4절의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증명됐다’는 바울의 고백에 주목한다.

그는 이 내용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서는 좁게는 로마서, 넓게는 바울 신학을 철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임을 발견했다. 그는 로마서에 대해 “바울의 대표적 걸작으로, 언덕들과 마을들 위로 우뚝 솟아 있는 알프스의 산봉우리와 같아서, 바울의 다른 편지들은 거기에 대면 난쟁이처럼 왜소해 보인다”고 평한다.

그러나 “이 산을 찾은 ‘구경꾼’들이 모두 동일한 관점 혹은 각도에서 이 산을 조망하지 않고, 등정하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경로를 택하지 않으며, 최선의 등산 경로에 대한 의견도 빈번히 갈린다”는 말로, 자신과 다른 학자들의 주해가 상당 부분 같지 않음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답변을 신약의 저자들과 예수 자신이 제시했다고 가정해 왔지만, 이러한



20세기의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로 꼽히는 존 머리 교수의 대표작인 <로마서 주석>은, 영어권에서 추천받는 로마서 주석들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늘 포함된다.

그는 서론에서 로마서의 저자가 바울인 점이 중요한 이유로 9-11장의 존재를 꼽으며, 바울이 ‘개종한 유대인’이었음을 지적한다.

누구보다 유대인의 정신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육신을 따라 난동족의 불신앙 속에 내재된 위험성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족의 구원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여러 차례 표현했다. 그러한 바울은 또한 이방인의 사도였고, 이미 존재하는 로마 교회의 성도에게 이 편지로 믿음을 든든히 세우려 했다.

존 머리는 1장 16-17절에 대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계속 점진적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한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걸작품입니다.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으로 수축되지 않고 인체에 완벽한 섬유와 세계 특허 이중지퍼 사용. 한국 식약처에 의뢰기기로 등록된 교정 코르셋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증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지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CORSET Tel: 323.316.6815

‘가적의 섬유’로 만든 ‘음이온 건강이불’, 발이 불편한 분은 ‘NB 메디칼 슈즈’, 가장 강한 ‘SJP 슈퍼 유산균 건강제품 전문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재미과학자 승문기 박사는 UCLA의 대학 박사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인정받았으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약한암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상의 6개월복용시 폐암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이전엔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종의 당뇨병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췌장에 인슐린 분비를 확실하게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있는 당뇨병 개선제입니다.

지긋지긋한 당뇨병 탈출

광생물 연구가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병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건강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1병 \$76
3병 \$200
6병 \$372

PRO-Z USA
미국 판매처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당뇨병 가능 개선제
PRO-Z

TONERSUM 칼라 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th 선착순 5명

\$69.99 \$149.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SAMSUNG SCX SERIES SCX-3405W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중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090)인 계기 송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GO & 캐더링 원형

머글레 싸갈래

오일별 음식 하루종일 \$7.99

월 북어구 통가스 오징어볶음 새우볶음밥 해물수제비

화 타불고기 콩치구이 오로라이스 떡만두국 우거지잡채

수 동태찌개 함박스테코다리찜 카레라이스 유부+우동

목 김밥(탕) 제육볶음 자반조림 소고기볶음밥 오일백반

금 궁치김치 통불고기 민어구이 김치볶음밥 오징어찌개

토 부대찌개 갈치구이 통가스 치킨데리야끼 김밥+우동

323.660.1004 (천사) 213-598-5552 4429 W. Beverly Blvd. LA CA 90004

주일은 쉽니다. 타운내 신속배달 (2인분 이상)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침실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신고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신고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개월 \$60

배배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튜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영어: 213.380.6868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Genesis 2015 ALL IN STOCK @ \$36,120

Genesis 2014 ALL IN STOCK @ \$36,120

Genesis 2014 ALL IN STOCK @ \$61,920

ALL NEW 2015 GENESIS SEDAN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www.winhyundaicarson.com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기독교미래연구원, 공교육 문제점과 대안 논의

NCKK 황용대 신임 회장

김남영 교수 “성경은 홈스쿨링을 매우 중요하게 제안”

통합측에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



세미나 전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연 홈스쿨링은 우리 아이들을 세속적인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을까?”

기독교미래연구원(원장 최병규 목사) 제2차 세미나가 2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세미나의 중심 주제는 ‘공교육의 문제점과 21세기 통일한국 교육을 위한 대안’이었다.

이날 김남영 교수(광운대학교 학장, 한국기독교홈스쿨협회 대표)는 ‘홈스쿨의 현황과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 교수는 홈스쿨링의 성경적 근거로 신명기 6장 4-9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를 인용하고, “성경은 유·아동 홈스쿨링을 매우 중요하게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 말씀은 유·아동 홈스쿨링에 대한 강력한 부르심이며, 수많은 크리스천 부모와 자녀의 교육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제안이기도 하다”며 “유·아동기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언제 가르쳐야 하는지 부모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했다.

김남영 교수는 홈스쿨링과 현대 교육을 다음과 같이 비교했다.

첫째로 현대교육의 목적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잠재력을

개발하여 유능한 인간이 되게 하는 데 있지만, 홈스쿨링은 세상 학문이나 기술 교육 이전에 자녀들을 거룩하게(Holiness) 양육하는 것에 목적을 갖는다.

둘째로 현대교육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특성을 개발해 주고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도록 권장하지만, 홈스쿨링은 자녀들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 교육을 시킨다. 즉 홈스쿨링은 어떠한 문제든지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성경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한다.

셋째로 현대교육의 환경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며 이런 환경을 갖춘 전문가, 즉 학교나 학원에만 의존한다. 그러나 홈스쿨링의 장소는 가정이다. 가정이야말로 모든 인간교육의 중심이다.

넷째로 현대교육에서는 ‘자녀교육을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가르친다. 따라서 현대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크기도 전에 전문가를 찾아나선다. 그러나 홈스쿨링에서의 선생은 부모 자신이다.

한편 김 교수는 “모든 장점들과 홈스쿨링의 성공 여부가 부모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큰 단점이기도 하다”며 “더불어 부모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신앙관 및 경영 능력 등에 대해서 조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 교수 외에도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홈스쿨링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나눴다. 정원종 전 EBS 강사가 ‘진화론 일방 교육으로 적자생존의 현상이 된 공교육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손정숙 박사(30년 대안교육)가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마병식 사무총장(기독교대안학교연맹)이 ‘대안교육의 문제점 및 전망’이라는 등의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한 가장 큰 의무도, 자녀에게 여호와 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다(신 6:4-9).

배움을 받는 학생은 가르치는 사람의 사상을 닮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대의 자녀들은 전문가에게만 배우기 때문에, 부모보다는 세속의 선생을 닮는다.

김남영 교수는 홈스쿨링의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첫째로 신앙에 집중할 수 있는 영성훈련이다. 둘째로 성경을 중심

으로 한 그리스도인 성품훈련이다. 셋째로 자녀의 기질과 능력에 맞춰 할 수 있는 지성교육이다. 넷째로 다양한 연령층과 잘 어울리는 사회성 교육, 이 외에도 일대일 연속적인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행이나 견학을 비수수기에 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가족과 친척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김 교수는 “모든 장점들과 홈스쿨링의 성공 여부가 부모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큰 단점이기도 하다”며 “더불어 부모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신앙관 및 경영 능력 등에 대해서 조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 교수 외에도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홈스쿨링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나눴다. 정원종 전 EBS 강사가 ‘진화론 일방 교육으로 적자생존의 현상이 된 공교육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손정숙 박사(30년 대안교육)가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마병식 사무총장(기독교대안학교연맹)이 ‘대안교육의 문제점 및 전망’이라는 등의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이 말씀은 유·아동 홈스쿨링에 대한 강력한 부르심이며, 수많은 크리스천 부모와 자녀의 교육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제안이기도 하다”며 “유·아동기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언제 가르쳐야 하는지 부모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했다.

김남영 교수는 홈스쿨링과 현대 교육을 다음과 같이 비교했다.

첫째로 현대교육의 목적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잠재력을

개발하여 유능한 인간이 되게 하는 데 있지만, 홈스쿨링은 세상 학문이나 기술 교육 이전에 자녀들을 거룩하게(Holiness) 양육하는 것에 목적을 갖는다.

둘째로 현대교육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특성을 개발해 주고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도록 권장하지만, 홈스쿨링은 자녀들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 교육을 시킨다. 즉 홈스쿨링은 어떠한 문제든지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성경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한다.

셋째로 현대교육의 환경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며 이런 환경을 갖춘 전문가, 즉 학교나 학원에만 의존한다. 그러나 홈스쿨링의 장소는 가정이다. 가정이야말로 모든 인간교육의 중심이다.

넷째로 현대교육에서는 ‘자녀교육을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가르친다. 따라서 현대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크기도 전에 전문가를 찾아나선다. 그러나 홈스쿨링에서의 선생은 부모 자신이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한 가장 큰 의무도, 자녀에게 여호와 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다(신 6:4-9).

배움을 받는 학생은 가르치는 사람의 사상을 닮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대의 자녀들은 전문가에게만 배우기 때문에, 부모보다는 세속의 선생을 닮는다.

김남영 교수는 홈스쿨링의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첫째로 신앙에 집중할 수 있는 영성훈련이다. 둘째로 성경을 중심

으로 한 그리스도인 성품훈련이다. 셋째로 자녀의 기질과 능력에 맞춰 할 수 있는 지성교육이다. 넷째로 다양한 연령층과 잘 어울리는 사회성 교육, 이 외에도 일대일 연속적인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행이나 견학을 비수수기에 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가족과 친척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김 교수는 “모든 장점들과 홈스쿨링의 성공 여부가 부모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큰 단점이기도 하다”며 “더불어 부모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신앙관 및 경영 능력 등에 대해서 조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 교수 외에도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홈스쿨링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나눴다. 정원종 전 EBS 강사가 ‘진화론 일방 교육으로 적자생존의 현상이 된 공교육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손정숙 박사(30년 대안교육)가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마병식 사무총장(기독교대안학교연맹)이 ‘대안교육의 문제점 및 전망’이라는 등의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이 말씀은 유·아동 홈스쿨링에 대한 강력한 부르심이며, 수많은 크리스천 부모와 자녀의 교육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제안이기도 하다”며 “유·아동기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언제 가르쳐야 하는지 부모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했다.

김남영 교수는 홈스쿨링과 현대 교육을 다음과 같이 비교했다.

첫째로 현대교육의 목적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잠재력을

개발하여 유능한 인간이 되게 하는 데 있지만, 홈스쿨링은 세상 학문이나 기술 교육 이전에 자녀들을 거룩하게(Holiness) 양육하는 것에 목적을 갖는다.

둘째로 현대교육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특성을 개발해 주고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도록 권장하지만, 홈스쿨링은 자녀들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 교육을 시킨다. 즉 홈스쿨링은 어떠한 문제든지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성경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한다.

셋째로 현대교육의 환경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며 이런 환경을 갖춘 전문가, 즉 학교나 학원에만 의존한다. 그러나 홈스쿨링의 장소는 가정이다. 가정이야말로 모든 인간교육의 중심이다.

넷째로 현대교육에서는 ‘자녀교육을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가르친다. 따라서 현대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크기도 전에 전문가를 찾아나선다. 그러나 홈스쿨링에서의 선생은 부모 자신이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한 가장 큰 의무도, 자녀에게 여호와 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다(신 6:4-9).

배움을 받는 학생은 가르치는 사람의 사상을 닮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대의 자녀들은 전문가에게만 배우기 때문에, 부모보다는 세속의 선생을 닮는다.

김남영 교수는 홈스쿨링의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첫째로 신앙에 집중할 수 있는 영성훈련이다. 둘째로 성경을 중심

으로 한 그리스도인 성품훈련이다. 셋째로 자녀의 기질과 능력에 맞춰 할 수 있는 지성교육이다. 넷째로 다양한 연령층과 잘 어울리는 사회성 교육, 이 외에도 일대일 연속적인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행이나 견학을 비수수기에 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가족과 친척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김 교수는 “모든 장점들과 홈스쿨링의 성공 여부가 부모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큰 단점이기도 하다”며 “더불어 부모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신앙관 및 경영 능력 등에 대해서 조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 교수 외에도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홈스쿨링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나눴다. 정원종 전 EBS 강사가 ‘진화론 일방 교육으로 적자생존의 현상이 된 공교육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손정숙 박사(30년 대안교육)가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마병식 사무총장(기독교대안학교연맹)이 ‘대안교육의 문제점 및 전망’이라는 등의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이 말씀은 유·아동 홈스쿨링에 대한 강력한 부르심이며, 수많은 크리스천 부모와 자녀의 교육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제안이기도 하다”며 “유·아동기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언제 가르쳐야 하는지 부모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했다.

김남영 교수는 홈스쿨링과 현대 교육을 다음과 같이 비교했다.

첫째로 현대교육의 목적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잠재력을

개발하여 유능한 인간이 되게 하는 데 있지만, 홈스쿨링은 세상 학문이나 기술 교육 이전에 자녀들을 거룩하게(Holiness) 양육하는 것에 목적을 갖는다.

둘째로 현대교육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특성을 개발해 주고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도록 권장하지만, 홈스쿨링은 자녀들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 교육을 시킨다. 즉 홈스쿨링은 어떠한 문제든지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성경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한다.

셋째로 현대교육의 환경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며 이런 환경을 갖춘 전문가, 즉 학교나 학원에만 의존한다. 그러나 홈스쿨링의 장소는 가정이다. 가정이야말로 모든 인간교육의 중심이다.

넷째로 현대교육에서는 ‘자녀교육을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가르친다. 따라서 현대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크기도 전에 전문가를 찾아나선다. 그러나 홈스쿨링에서의 선생은 부모 자신이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한 가장 큰 의무도, 자녀에게 여호와 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다(신 6:4-9).

배움을 받는 학생은 가르치는 사람의 사상을 닮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대의 자녀들은 전문가에게만 배우기 때문에, 부모보다는 세속의 선생을 닮는다.

김남영 교수는 홈스쿨링의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첫째로 신앙에 집중할 수 있는 영성훈련이다. 둘째로 성경을 중심

으로 한 그리스도인 성품훈련이다. 셋째로 자녀의 기질과 능력에 맞춰 할 수 있는 지성교육이다. 넷째로 다양한 연령층과 잘 어울리는 사회성 교육, 이 외에도 일대일 연속적인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행이나 견학을 비수수기에 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가족과 친척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김 교수는 “모든 장점들과 홈스쿨링의 성공 여부가 부모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큰 단점이기도 하다”며 “더불어 부모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신앙관 및 경영 능력 등에 대해서 조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 교수 외에도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홈스쿨링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나눴다. 정원종 전 EBS 강사가 ‘진화론 일방 교육으로 적자생존의 현상이 된 공교육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손정숙 박사(30년 대안교육)가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마병식 사무총장(기독교대안학교연맹)이 ‘대안교육의 문제점 및 전망’이라는 등의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NCKK 황용대 신임 회장

한국교회협의회(NCKK) 신임 회장에 취임한 한국기독교장로회 황용대 총회장(대구 성삼교회)이 총회 폐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소감과 함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황 신임 회장은 특히 NCKK 총무 인선 과정에서 불거진 사태에 대해 “NCKK가 철저히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생각한다”며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번 기회에 문제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통합측과의 갈등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통합측에 마음을 교류하는 친구와 선배들이 많다”며 “이번에 통합측도 나름대로 상처를 받았을 텐데, 진정성 있게 다가감정을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갈등과 분열을 싸매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며 “NCKK가 진보만이 아니라 보수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야말로 예큐메니칼 지평을 넓히는 데 힘쓸 것”이라고도 했다.

다. 구 체적 방안에 대해선 “보수 교단들이 가진 강점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그들도 진보적 입장을 가진 이들에 대해 마음을 열 것”이라며 “이는 대구 성시화운동을 통해 직접 경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용대 신임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화와 타협, 소통과 합의의 정신으로 새로운 예큐메니칼 운동의 희망을 선포할 것”이라며 “겸손하게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일과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예언자로서의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법연구원

제10기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 개최

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 김영훈 박사) 주최 제10기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가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교회관 대강당에서 24일 오후 1박 2일 일정으로 개막했다.

첫날에는 원장 김영훈 박사가 ‘치리회 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김 박사는 “하나님의 법인 성경이 모든 규범 중 최고의 규범이자 삶의 지침서이고, 교단헌법의 원천”이라며 “교회재판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법인 성경의 정신, 즉 ‘사랑에 입각한 정의의 실현’을 기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의 ‘성경대로 살자’를 그 본보기로 들었다.

그는 “교회의 권징은 국가법에 의한 형벌권 행사가 아니고, 신령한 교회법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권징은 성격상 형벌이 아니라 교훈·교정·양육·훈련의 의미를 갖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므로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박사는 치리회 재판의 개선 방향으로 무엇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 정체성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세속화 탈피로 인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 나

라의 본질을 회복하는 절대주권 확립, 하나님나라의 복음만이 선포되고 실현되는 교회, 비성서적 율법폐기론 방종주의와 선행무용론 추방, 선한 영성과 지성의 함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규범의식과 준법정신 함양 △정치적 회복을 통한 신령일치로의 그리스도인 행동 변화 △선한 영성과 지성의 균형적 함양 등을 덧붙였다.

제도적 사항으로는 △재판의 준거 규범인 총회헌법 등의 체계 및 내용 정비 △공공성 방식과 비총대법학교수, 변호사 과반 등 재판구성원의 전문성 제고 △법 전공 직원 확보를 통한 재판관 운영의 비효율성 제고 △재판관·기소위원들의 비리·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장치 마련 △화해·조정 합의 방안 마련 △전문가에 의한 변호인 제도 합리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둘째날인 25일 오전에는 변호사인 김병헌 박사(전 총회헌법위원장)가 ‘형법상 업무방해죄’,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가 ‘십계명의 현대적 의의’ 등을 발제했다. 아카데미는 김영훈 원장의 수료증 수여로 마무리됐다.

김진영 기자

오바마케어 벌금 면제기관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고후 9:12)

전국민의료보험시대,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의료상조회는,

- IRS Section 501(c)(3)에 의거한 비영리 기관인 로고스 선교회 소속이며
- 오바마케어 벌금 면제 기관인 Health Care Sharing Ministry로서,
-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의료비 나눔 사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북부지역: 엘에이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벤추라 카운티 산타바버라 카운티

교회 및 단체, 소그룹 모임 세미나 접수받습니다!

의료 보험료가 부담스런 한인들을 위해 “오바마케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남가주 북부지부 | 지부장: 김경호 목사 | ☎ 213.249.1161 | shelby.moon65@gmail.com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기독교일보 LA | ☎ 949.864.9162 | cmm6791027@gmail.com

※ CMM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험회사가 아니며, 비영리 Health Care Sharing Ministry(의료비 분담 사역)입니다.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본부) 52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 무료전화 888-777-8226 | www.cmmlogos.org | info@cmmlogos.org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미국에서 에쿠스를 가장 많이 파는 딜러!
소비자 만족도 서부지역 1위!
미국에서 가장 큰 단일 현대 딜러!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Thanksgiving Special

쏘나타를 만나는 특별한 기회! 지금 푸엔테 힐스 현대에서 확인하세요!
2014, 2015 전 모델 차량 인수 하시고 첫 페이먼트는 90일 후부터 내세요!

최신형 2015 SONATA SE

\$118 +TAX *\$0 DOWN
36mon.

MSRP: \$22,085,
\$0 DUE AT LEASE SIGNING, LEASE CASH \$500,
HOLIDAY BONUS CASH \$500,
LA AUTO SHOW BONUS \$500,
VALUED OWNER COUPON \$1000, BOOST UP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MODEL #28402F45



최신형 2015 ELANTRA SE

\$58 +TAX
36 Mon.

MSRP: \$19,410.
\$2,995 DUE AT LEASE SIGNING,
VALUED OWNER COUPON \$500,
LEASE CASH \$500,
HOLIDAY BONUS CASH \$500,
BOOST UP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MODEL #45432F45

최신형 2015 EQUUS SIGNATURE 'DEMO'

\$485 +TAX
36 Mon.

4대 한정

MSRP: \$62,450, \$4,990 DUE AT LEASE SIGNING, RESIDUAL VALUE \$32,474,
LEASE CASH \$2,000, VALUED OWNER COUPON \$1,0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MODEL #E0422R85



HYUNDAI

1-888-850-2077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513.4006



저스틴 길
626.513.4580

www.phhyundai.com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